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

오산다운 오산만의 보물찾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산문화원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
오산편 결과보고서

오산다운 오산만의 보물찾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산문화원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오산편 결과보고서

INDEX 목차

여는 글	이제는 삶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I 엄상덕	. 05
마을큐레이터, 왜? 어떻게? 무엇?		. 06
특강	도시재생부터 에코뮤지엄까지 I 류설아	. 17
특강	오산시의 문화자원 I 김용국	. 27
과정 ①	나만의 오산 속 우리 마을 키워드 찾기 자기소개, 주제 탐색	. 35
과정 ②	계획 세우기 사례공유, 주제 찾기, 팀 정하기, 조사 방법 논의	. 55
과정 ③	현장 속으로 조사 결과 중간 발표, 피드백	. 67
결과 ①	오산 마을큐레이터의 보물찾기 발표 I 오미수범	. 83 . 85
	발표 I 오매사랑	. 88
	발표 I 기억의 샘터	. 89
	발표 I 힐링야지트	. 90
결과 ②	오산 마을큐레이터를 마치며	. 93
결과 ③	사진으로 보는 오산 마을큐레이터	. 95

이제는 삶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경기도, 소위 ‘경기성’이라고 믿는 그 공고한 중심성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축적해 온 경기의 일상적 본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중심적 성질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에서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확고한 실체들 틈에서, 이른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 속에서, 고정된 관념 이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리고 생산되고 있는 유·무형의 의미들을 모으고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경기의 자본주의적 근대공간은 근대성 본래의 의미를 잃은 채 효율과 부의 창출에 몰두하여 무성적인 ‘중심’들만 생산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기도에는 급격히 지우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방치된 또는 아직 자본의 힘이 미치지 못한 것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함축된 시간의 풍경이, 마을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그 ‘나머지’ 장소들에서 경기도의 지난 시간을 추적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재된 단초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성은, 즉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성질들은 거대한 기념비들만 강조되는, 되어야 하는 이유들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떠나 큰 사건 위주의, 기념해야 한다고 믿는 역사 뒤에 가려진 ‘지역’의 일상성을 이제는 다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역’이라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는 ‘보잘 것 없는’이라는 이미지에 반대해야 합니다.

농부의 몸뚱이바지에 숨겨진 위대한 일상을 발견하면서 큰 것, 큰 소리가 위대하다고 믿는 주류적 생각들에 안타까워하며 통쾌해하는 ‘삶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마을큐레이터, 무엇? 왜? 어떻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 일환으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지난 2017~2018년 의왕, 2017~2019년 하남에서 진행했다.

올해에는 오산문화원과 해당 사업 첫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What?

- 지역자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축적된 결과물로써 지역의 현재(일상)를 조사하여 사람, 사물, 장소, 분위기 커뮤니티 등 지역자원을 발견
- 발견한 지역자원을 새롭게 분류, 조합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만들고, 가치를 부여
-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담은 현재의 콘텐츠 제작

Why?

-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그 역할이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통과 전례의 답습 차원에 머문다는 인식으로 생활문화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 주민의 삶을 다룬 활동을 꾸준히 지속했으나 전통과 역사에 대해 학식 높은 활동가의 활동에 집중돼 있으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음
- 생활문화 관련 사업 지원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문화원 목적사업의 일환인 향토문화 보급과 보존이라는 목적사업에 현재성을 담은 생활문화적 버전 필요
- 주민이 직접 현재의 생활문화를 읽어내 지역 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문화원이 네트워크 하는 구조 마련
- 지역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주민 활동가 양성 필요
- 지역문화원은 지역자원을 연결해 마을큐레이터(주민 활동가)가 지역을 아카이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
- 문화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구성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주민 참여에 문화원과 주민 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다움'발견

How?

- 문화원이 지역주민자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의 생활문화를 읽어내는 구조 마련
- 오산문화원 이야기꾼 활동 1)과 연계, 생활문화 이야기 지도 만들기 추진
 - 오산문화원 이야기꾼 양성과정 2018년 8~10월 진행
- 주민 주도의 지역읽기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한 전시 추진
- 추진 체계 및 역할 아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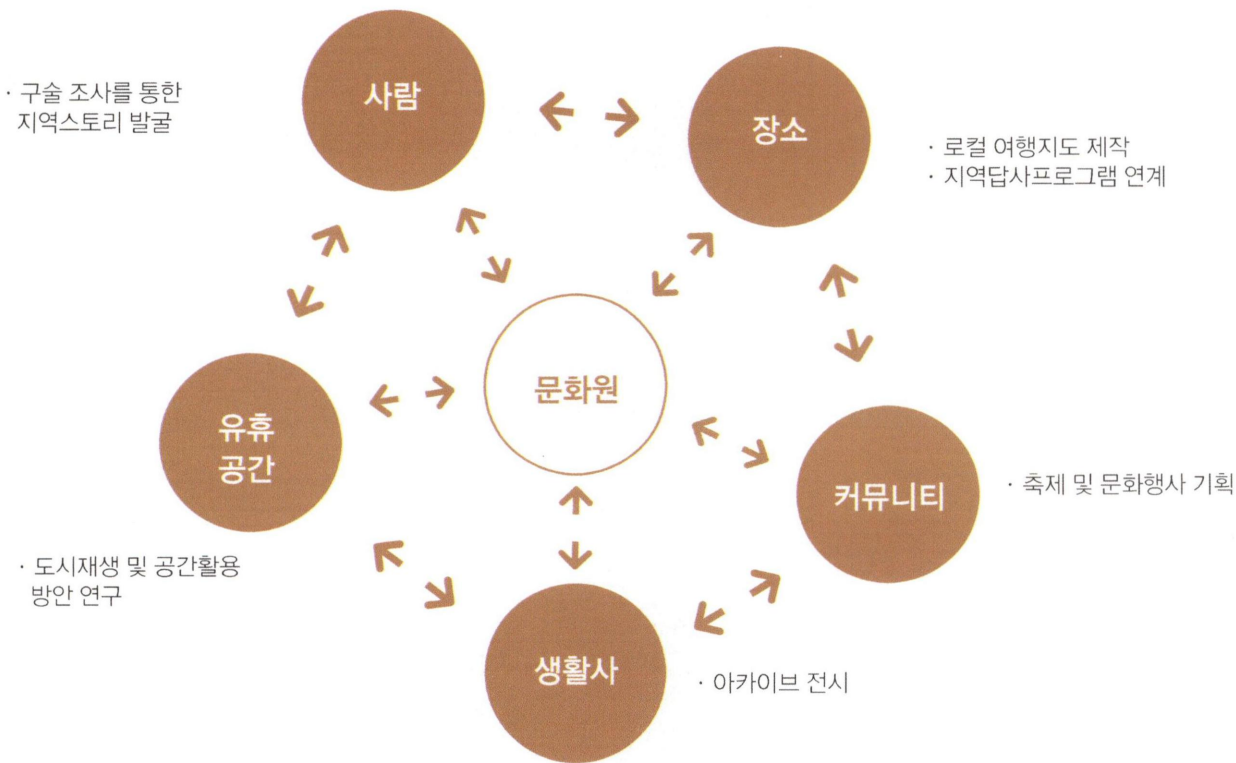
■ 마을큐레이터 양성 추진 체계 및 역할



기대효과

- 문화해설사가 갖지 못하는 생활문화, 일상문화를 더욱 촘촘히 읽어낼 수 있는 주민 활동가 양성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공간적, 사회적 변화가 일상생활 양식에 미치는 현재 요인을 발견하고 지역문화의 특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망
- 주민으로 구성된 활동가 양성을 통해 문화원 활동을 가시화하고 발견된 지역적 특성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획 마련
- 문화원이 지역민 생활문화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주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 고취

1) 오산문화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8차시에 걸쳐 주민 대상 '오산이야기꾼 양성과정-우리동네 옛날 옛적에'를 진행했다. 수강생은 오산의 역사, 민속, 설화 등의 강의를 들은 후 이를 전달하는 기법을 들었다.



과정

구분	일정	내용	구분	일정	내용
Part I 사례 공유와 방법 알기	2019. 6. 13	오리엔테이션 & 강의	Part III 마을로 나가기	2019. 7. 25	팀별 중간 피드백
	2019. 6. 20	오산 주제 특강		팀별 일정	팀별 마을 조사
	2019. 6. 27	자기소개 & 주제탐색		2019. 8. 22	2차 중간 피드백
Part II 계획 세우기	2019. 7. 4	팀 확정 및 주제 논의	Part IV 과정 나누기	2019. 8. 29	지도 제작 & 전시 기획
	팀별 일정	팀별 마을 조사		2019. 9. 5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 수료증 발급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오산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소개

드디어 오산 마을큐레이터 양성 과정의 첫날, 정진홍 오산문화원 원장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표현하며 시작을 열었다.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의 사업 취지 설명과 실무자 소개가 이뤄졌다. 오다에 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은 앞서 진행한 의왕과 하남에서의 해당 사업 결과 영상을 상영하고 오산문화원과 오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수강생은 이어진 류설아 퍼실리테이터의 주제 강의에 빠져들며 자신이 선택한 오산 마을큐레이터 되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왕은 2년차에 마무리하고, 하남은 3년차 진행하고 있고, 올해 오산에서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왕과 하남이 선착순 20명 모집했는데 마지막에 졸업하신 분이 18분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하다보니 재밌더라”고 하신 의왕, 하남 18명이 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산으로 확대됐고 몇 년쯤 지나게 되면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큐레이터들이 대략 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으로 4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원과 함께 움직이는 큐레이터, 품앗이안, 청년기획자, 향토사학자 다 합치면 1200명 정도가 문화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마을큐레이터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큐레이터! 큐레이팅 한다” 하면 보통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미술관에서 전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잖아요, 전시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림트가 그린 작품들이 한 20점 있다면 한 때는 키스를, 한 때는 다른 걸 해서 클림트의 새로운 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구성들을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림트를 깊이 연구하고 재구성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을을 재구성하는 사람을 마을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을을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을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 이 분들을 지역주민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프로젝트를 구동하면서 네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산 지역의 구글지도를 열어보면 전부 다 거리, 축적, 66만대 1, 10만분의 1, 거리로 계산해서 오산 지역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 있지만 대동여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은 크게, 어느 지역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산지도를 그리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의 건물들이 커지고 내가 자주 다녔던 길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게 되는데 안 갔던 길은 작아지겠죠. 우리가 생각

하는 거리상의 지역이 전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지도가 내가 다시 지도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음식점이 맛있으면 커지는 거죠. 그런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로 흔히 공간이나, 장소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오산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행정상, 거리 축적 지도상 내가 존재하는 이 지도상의 공간,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아이가 다니는 길,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이라는 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지역의 장소성을 회복해보자. 이 장소성을 회복해 오산의 문화유물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문화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오산지역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동안 문화원은 과거를 연구하는 곳이다. 지역의 향토사, 과거의 역사, 전통 등이 있죠. 그러면 과거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될까. 대부분 문화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상고사, 고인돌이 과거인데 과거는 1주만 지나면 과거가 되는 이 과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원에서 연구하는 시간의 축은 100년 전의 오산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0년 이후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또는 피난 가고 싸우기도 하고 한 이웃이, 그러한 이웃이 살고 있는 이 오산지역이 이미 과거가 되어있는 이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지? 과거를 집중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은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겪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롯데마트가 가진 장소성을 내 주관적이고 편협하게 롯데마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한 객관



적이고 보편적인 속성들을 끄집어내야지. 나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공감하는 롯데마트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야지 롯데마트란 공간이 새로워지는거죠. 나도 그래. 나도 저랬어. 이런 공감을 하는거죠.

대중가요 보면 사랑노래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작곡가들이 자기 사랑노래를 만들고 이별노래를 만들어요. 근데 다 개인적인 사랑. 이별노래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이 왜 그래요? 공감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거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럼 10월도 상관없고, 사물도 상관없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 밤에 내가 이별했던 순간을, 그 날의 쓸쓸했던 추억을.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동안 문화원은 '발굴'을 했지만, 이제는 '발견'을 하고싶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지역을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까맣게 죽은 고목나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코카콜라 캔, 사이다 병 같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너 이게 뭐 줄 알아? 옛날에는 이 나무가 향나무였어. 지금은 이렇게 죽었는데 이 나무가 제일 좋은 향나무였어. 옛날에는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제사지낼 때 이 향나무를 직접 깎아서 향을 피웠대요. 지금은 수명을 다해서 죽은 향나무가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 향나무가 제사를 지낼 때 깎았던 향나무가 되고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향나무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썩은 고목과 쓰레기장으로 덮인 이 향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고 이 나무를 볼 때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깎아서 우리를 도와줬던 향나무. 근데 지금 쓰레기로 변해버렸잖아요.

그 향나무를 보는 순간 뭔가 몽클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 갈 때마다 그 고목이 쓰레기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훨씬 더 커보여요.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새로운 걸 다시 한 번 보게 되는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요. 만약 답사 코스를 만들면 우리가 다른 곳의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그런 곳들의 발견을 구석구석해보면 오산지역이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거죠.

또 하나의 사례는 공원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하남에서 작년의 주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지역이야기' 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남에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좀 끄집어내자 그랬더니 의자 하나를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 의자가 무슨 의자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산책을 다니다가 꼭 이 의자에 앉아요. 10분이고 20분이고 꼭 이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산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의자를 볼 때마다 엄마생각이 나요. 그건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역사지만, 그 의자를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의자를 볼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이 하는거죠. 저는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외국사람들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자나 나무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답사하고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3년 전에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플랜을 가동했다고 했죠. 그것은 '문화원 직원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지방문화원이 이렇게 발전 해야된다는 주제의 포럼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의 솔루션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학을 중심으로 문화원을 특화시켜야 된다'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이 오픈플랫폼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플랫폼을 서울역으로 생각하면, 서울역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기차가 들어왔던 차선을 변경하고 다른 목적지로 향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동안 문화원은 원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모든 사업을 다 기획해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계몽시켜서 일을 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직원은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겁니다.

시민들이 깨어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문화원에 가져오면 문화원은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문화원이 하면 직원이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별로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큐레이터라는 큐레이터, 마을을 재구성하는 기획자, 시민기획자들이 '마을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답사코스를 만들어 봐요'라는 아이디어를 주고 기획을 해 오면 그 기획을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기획자들이, 여기에 문화원은 깃발만 꽂는 거죠.

이 사례가 있습니다. 시흥문화원입니다. 시흥문화원은 굳이 말하자면 윈스탑 컬처센터입니다. 뭐냐하면 그 시흥문화원에 가면 사우나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마사지숍도 있고, 식당도 있어요. 상가건물 4층을 빌려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상가건물에 마사지숍이 있고 옆에 퇴폐마사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당구장도 있어서 문화원 회원이 줄어드니까 머리를 짜내어 문화원에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모이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깃발꽂기, 품앗이안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이제 목감지역에, 정왕지역에, 신천지역에 거기서 인문학카페랑 거기에 시흥문화원 배너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전역이 문화원이 되는거죠. 거기에 직원들이 가느냐, 안가요. 시민기획자들이 일하는 겁니다. 고마우니까 활동비로 10만원씩 드렸어요. 10만원으로 뭘 하시냐면 아파트에 사랑방이 요즘에는 다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아파트 축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문화원은 다른 데서 하면 축제 한 번 하면, 4~5백만원, 4~5천만원씩 하는데 10만원짜리 아파트축제가 훨씬 더 재밌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이 오산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을큐레이터가 오산지역에서까지 3개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하남, 의왕이 18명이 수료하는 정도면 가능성 있겠다. 그래서 한 4~5년 후에는 각 지역에 마을큐레이터들이 지

역을 조사해서 지역의 재미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그것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탄생하는 이런 순간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을 보여드릴텐데요, '아는 동네 아는 이태원'이라는 책이에요. 이태원을 청년들이 조사한 겁니다. 이태원이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내용은 촌촌한데 아주 감각적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이 책을 샀어요. 이태원에 가면 볼 것들이 이런 게 있다고 청년들의 시각으로 재밌게 엮은 거예요. 지도들도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나도 여기 가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만 아는 독특한 이태원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올해 하남 가서 이 책을 보여드렸더니 우리도 이런 책을 내고 싶다. 올해 3차년도 사업은 이런 책을 '아는 동네 아는 하남'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3년 뒤에 오산에서도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끝이 아니라 이 책을 바탕으로 오산지역의 주민들이 야, 여기 이게 뭐 줄 알아? 이 향나무가 뭐 줄 알아? 이런 것들을 하면 독산성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정이 빠빠하지만 이후에 어떤 모양새가 될 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것을 발견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하남하고는 다른 모양이 나타나겠지만, 그 어떤 다름이 나타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도시재생부터
에코뮤지엄까지
— 류설아

특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퍼실리테이터이자 오늘 특강을 맡은 류설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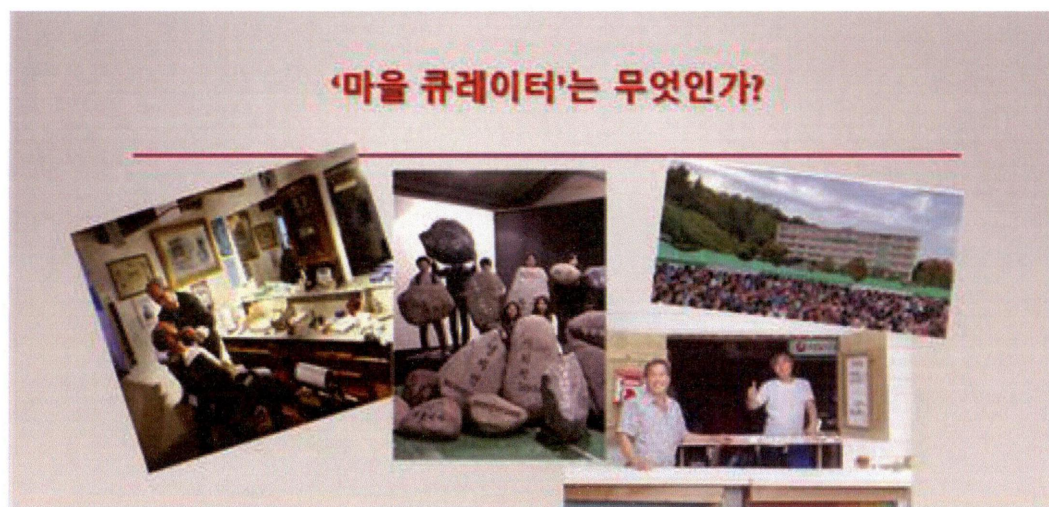
“자, 이제 옆에 앉은 분과 인사하시고 어린 시절 가장 많이 했던 게임 중 하나인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마지막 한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손 들어주세요. 1등 하셨습니다. 성함 좀 말씀해주세요. 네 1등하신 김영순 님은 결승에서 꼴찌로 떨어진 저 남자분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선물을 전달해 주시겠어요. (웃음) 오랜만에 가위바위보 재미있게 하셨죠. 가위바위보는 원래 이긴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구요. “엄마 이긴 건 너무 기쁘잖아. 진 사람은 슬픈데 이긴 사람이 선물까지 다 가져가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어떤가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에 당연하게 1등이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떨어진 분에게 선물이 돌아갔죠. 우리는 지금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익숙했던 걸, 너무 당연했던 걸 다시 볼거예요. 거꾸로 볼거예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사람은 이겨서 기쁘니까 진 사람을 돌보는, 진 사람한테 선물이 돌아가는, 우리 그런 방식으로 지역 안에서 나를 위한 행복찾기를 해보자 이렇게 할거예요. 이게 마을 큐레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가위바위보 게임하듯 재미있게 여러분과 오산시를 알아가고 무엇보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퍼실리테이터 류설아입니다. 자, 이제 몸 좀 풀리셨나요? 퍼실리테이터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주제로 10년 이상 취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체험마을 만들기부터 컴퓨터 인터넷 다 해야되는 시대에 발맞춰 노인분들한테 그걸 다 가르쳐주느라 모든 마을마다 정보화마을 등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시재생류의 사업이 펼쳐졌어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관심 갖고 기사도 많이 쓰고 정말 건강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취재를 하다가 책 <행복한 마을혁명>을 내면서 저 나름의 해답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마을큐레이터예요. 그 옛날 골목문화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을 풀어놓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다들 골목에서 자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건강한 도시재생이 이뤄진 한 마을에는 골목문화와 같은 것이 되살아났어요. 아이들을 골목에서 키우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책을 내면서 그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힘이 바로 마을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류의 사업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아까 말씀드린

원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진행할 때 이런 분들은 보호받는 대신에 다 쫓겨나가거나 기존의 동네문화, 골목에서 놀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 해체되죠. 자, 이렇게 주인이 배제되고 그냥 도시를 일단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것에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 도시만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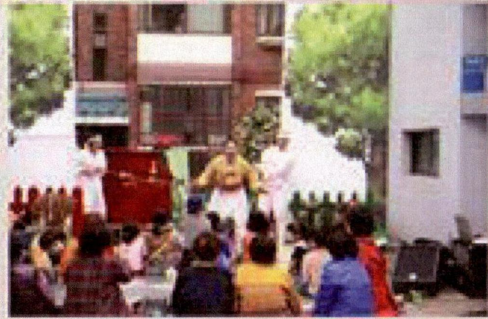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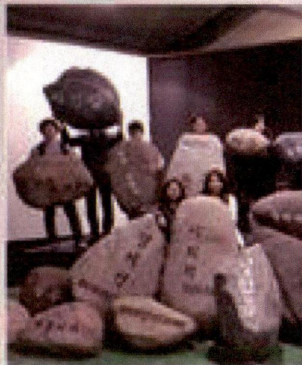


지고 작은 도시로 갈수록 약해지고 이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바꾸죠. 도시재생으로 말이예요. 모든 도시가 잘 성장하고 자리잡을 줄 알았는데 쇠퇴도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쇠퇴도시 기준은 인구가 줄고 사업체 수, 근로자 수, 건물들도 오래 되서 건축물도 낡아요. 쇠퇴都市는 점점 그냥 그 한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까지 야기하죠. 그래서 2007년 정부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단이 출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교통정리하고 이런 것에 집중했다면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기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자.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에 문재인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은 국가적 이슈이고 고민하는 문제죠.

영국의 사회학자 패트릭 게데스는 '성장과 쇠퇴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는 도시는 재생의 성공여부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한 아이가 성장하고 노인이 되고 이 노인이 행복해지고 다시 꽃다운 청춘 못지 않은 삶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진화하는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한단가요? 재생의 성공여부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을큐레이터,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 재생의

군포 '파출소가 돌아왔다'



성공 여부는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손에 달렸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죠? 마을큐레이터. 우리 아직은 마을큐레이터가 안 됐죠? 되는 과정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셨다니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남성분도 계시고, 오산시에 살아 숨쉬는 주민들이 있었구나 해서 놀랐고요. 마을큐레이터 하면 쉬운 단어도 아닌데 뭔지 시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첫걸음을 떤 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그러면 마을큐레이터 도대체 뭘까요? 여기 사진 위아래 속에 있는 일부 예인데요. 여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저기 외국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중장년층 남자 두분도 있네요. 그

주민이 주인되는 성남 논골



뒤에 마을 사람들도 있네요. 이런 분들이 마을큐레이터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 이제부터 이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군포 파출소가 돌아왔다’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한 방법론으로 2013년에 시작이 됐고 한 3~4년간 유지됐던 프로젝트인데요. 기존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예술가들이 도시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협업하고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골자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군포에서 도시의 인구구성이 바뀌고 파출소들이 통합되고 관리할 대상지가 적어지다보니 어떤 파출소는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시청에서는 건물 폐쇄되면 다른 걸 세울까? 군포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예술가이면서 시민이었던 한 사람이 ‘그 건물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쓰면 안될까’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게 된거죠.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죠.

예술가들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을 그 공간에 모이게 하고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소통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예술가가 만든 돌 모양 스티로폼이에요. 이걸 파출소 벽에다 부착해요. 이 학생들이 동네를 돌면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경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돌에다 새겨넣기로 했습니다. 예술가가 한 일은 돌 모양을 파출소 벽에 붙이자는 것이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학생들이 직접 하게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지역을 돌면서 우리 동네는 이쪽은 너무 어둡고 저 집은 맨날 술먹고 소리지르고 이런 우범지대가 있는 곳의 파출소였던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걸 “길 없음”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여러 곳의 파출소에서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딱 한 곳이 살아 남아 운영되고 있어요. 그 곳에는 마을큐레이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공장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파출소였어요. 군포 파출소 가운데 그곳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 주민이 답사를 하고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잘 모르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했던 거예요. 외국인이 자기나라 음식을 만들어 와서 판매하고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이웃과 소통하는 데 사용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례는 주민을 처음부터 키맨으로 발굴한 사례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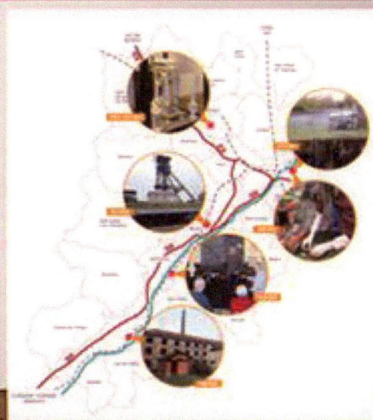
주체가 없어지면 흐지부지됩니다. 어느 한 문화기획자가 장흥이라는 도시에 가서 처음부터 주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같이 기획하고 이끌어 나갈 시민은 누구일까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데 집중했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은 예전에 장흥역이라는 기차역이 활발하게 운영됐던 동네예요. 지금은 이용객이 없어서 멈췄죠. ‘장흥 오라이’가 프로젝트 명칭인데, 이 기획자님이 조사하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옛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역 앞에 낡은 단층 건물들, 다방, 다방 아가씨의 화려한 옷들, 그런 것들이 그

대로 남아있는 공간을 광장처럼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마을의 이장 출신인 목수를 발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안해요. 바로 이 분이 키맨이 되어 기획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내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논골에서 태어난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외지로 나갔다가 환경생태교육활동가였는데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왔는데 옛날에 골목에서 다들 놀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돈이 조금만 모이면 다 이사 갔어요. 우리 동네 그래도 다닥다닥해도 재밌게 살았는데. 애들 다 같이 키웠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갈 데도 없으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고 여기서 놀게 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도서관 만들려면 책도 사야 하고 건물도 있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졌죠. 한두 명이 지금 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그 동네에 어떤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딱 만들 순 없는 거니까요. 이 분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요. 마을 사람 천 명 가까이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2~3년을 꾸준히 하다가 끝내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보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려 예쁘게 하고, 어떤 분은 책 읽어주고, 갑자기 공동육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흘러갔으면 끝이 났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마을이 좋아집니다. 보람을 느껴요. 이제부터 이 마을을 더 예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대통령상도 받게 됐습니다. 성공한 이유네요. 다른 도시들처럼 관광도시를 지양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외지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 싫어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적죠. 걷다보니 여기만 쓰레기가 모여요. 욕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가 양심

프랑스 에코뮤지엄 주체 = 마을 큐레이터



거울 하나 붙이자. 그러면 쓰레기 버리고 눈뜨면 거울이 나를 보고 있어요.

문구는 ‘우리 아이가 곧 지나갈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 재밌는 축제 만들어볼까? 처음엔 몇백만원으로 학교운동장에서 시작했는데 아주 단순한 먹거리 해놓고 명랑운동회처럼 정말 즐거운 축제예요. 지금은 몇 천 명이 모이는 마을 대표 행사가 됐죠.

약간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크리스마스 때 마을 아빠들이 다같이 아빠산타가 되요. 마을을 돌면서 각 집마다 선물을 줘요. 우리 마을 돌면서 역사 배우기, 우리 마을의 꽃배우기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줄을 서요.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접수하는 전날 밤에는 마치 케 이팝 콘서트처럼. 엄마들이 돛자리 피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던 학생 일부가 대학생이 돼 돌아와서 봉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유명하지 않고 관광지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가 행복하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기존의 주목받은 도시재생이 마을의 경제가 살아나고 갑자기 화려해지는 것이었다면 프랑스에서 이야기하는 에코뮤지엄에서 도시재생은 도시가 행복해지고 그 마을이 행복해지려면 결국엔 마을큐레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을 이미 1960년대부터 정의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1960년대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지역사회 사람들의 생활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발달과정 역사를 탐구하고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현재에서 보존 육성하고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을 에코뮤지엄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 국제박물관회의에서 발표한 에코뮤지엄의 정의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에코뮤지엄은 한 장의 거울이다. 주민은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그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해낸다. 어떤 공간이 전시하는 공간이 거울이면 그 거울에 주민이 투영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결국 전시품이 되는 것이고, 주민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지 결정해야 되고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거죠.

제가 2016년에 운 좋게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장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계속 강조했어요. 에코뮤지엄 박물관이라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보지 말라. 개념을 바꿔라. 이거는 철학적이고 이념이야. 에코뮤지엄은 동네를 그대로 보존해야 길거리 가다가 건물 하나가 있어도 에코뮤지엄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알자스는 경제적인 환원도 되는 테마파크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뮤지엄을 만들면서 마을큐레이터분들이 참여해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있지? 그렇게 발견한 마을 주민을 알자스 내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운영자로 영입합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50년 넘게 이발사를 하셨던 남자분은 자신의 가게를 폐업한 이후 오랜 만에 이 알자스에서 손님을 받고 있어요. 이 이발소 할아버지가 자기 도구들을 다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 계셨고 아직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기획자들

이 할아버지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셔서 이발해주시면 된다고 제안했죠. 재밌는 건 완전 전통방식으로 하시는데 독일에서 온 남자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걸 찍었어요. 할아버지 웃으시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거죠.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가축을 키우는 분들, 전통방식으로 쿠키를 굽는 할머니들, 오크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젊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마을큐레이터에 대한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마을큐레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예요. 프랑스 에코뮤지엄 중 학교박물관이 있어요. 학교 박물관의 운영자는 그 지역에서 50년 넘게 교사를 했던 분이고 퇴직한 교사 10명이 함께하는데 다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통 학교의 특별한 군가나, 나막신, 충기들이 다 그대로 마련이 되어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매일 마을을 돌면서 또 새로운 사진, 새로운 것들을 찾고 계세요. 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전문 큐레이터 못지 않은 열정과 전시기법을 보여주시더라구요. “내가 이 지역 사람인데 나보다 더 이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면서요.

자, 오산에도 어떤 게 재밌는지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마을큐레이터는 결국 기록이고 기획자고, 오산시의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창한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엄청 멋지게 만들어내자고 여러분들을 닦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옆사람 보고 나를 먼저 보는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주민 이야기 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을큐레이터로서 앞으로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자구요. 보고 듣고 기록하기.

여 백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오산의 문화자원 - 김용국

특강



오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김용국 아시아문화원연구원장의 특강 '오산의 문화자원'이 펼쳐졌다. 수강생이자 동시에 오산시민인 예비 오산마을큐레이터는 눈을 반짝이며 오산시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문화자원의 살폈다.

문화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럼에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문화는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 단 한 뼘도 인문학적 기억을 간직하지 않은 땅은 없다.

- 김용국

문화자원 = 미래?

우리가 오늘날 내리는 결정은 종종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과거유산을 이해해야 한다.

- 뉴욕주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

지역의 자원(보물)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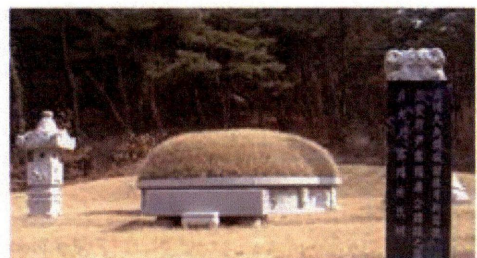
문화자원이란? 유·무형의 여러 요소로서 특정 문화를 대표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다. 문화 자원에는 유적, 유구, 유물, 역사 지구, 그리고 역사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출판된 『문화자원관리지침, 1981』

오산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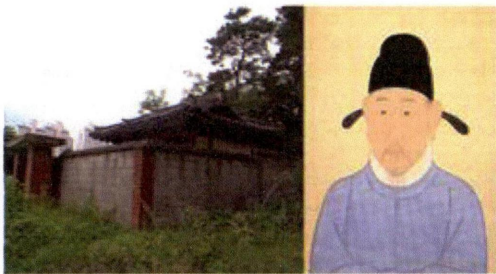
- 전통 자원 : 지명, 옛이야기, 인문, 유물, 유적, 민속, 마을신앙
- 근현대자원 : 산업, 인물, 사건, 건축물
- 자연생태자원 : 나무, 새, 곤충, 산, 개천
- 인적자원 : 숨겨진 재주꾼

唐씨 시조묘



魏나라大夫 당저(唐睢)의 후손으로, 송(宋)나라徽宗 때 승상(丞相)에 올랐던 당각(唐恪)의 7세손 당성(唐誠)이 원(元)나라말기에 전란을 피해 고려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당성(唐誠, 1337년 ~ 1413년)은 고려에 귀화, 1392년(태조1)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성품이 근실하고 율문(律文)·사대문서(事大文書)에 능하여 고려 말과 조선 초의 형정(刑政)과 외교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조선태종때 밀양(密陽)을 사적(賜籍)받았다.

이지란



통[佟]쿠룬투란티무르[古倫豆蘭帖木兒] : 이성계와 결의형제. 1371년(공민왕 20) 부하를 이끌고 귀화, 북청에 거주하면서 이씨 성과 청해(靑海)를 본관으로 하사 받았다. 1380년(우왕 6) 이성계가 지휘하여 왜구를 섬멸한 황산대첩에서 활약했고, 1385년 함주에서 왜구를 격파, 1388년 위화도회군에 참가, 서해도에서 왜구를 격파했다. 1392년 명나라를 도와 여진추장 월로티무르[月魯帖木兒] 정벌에 참가하여 명에

의해 청해백(靑海伯)에 봉해졌다. 그해 조선이 건국하자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에 책록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 1393년(태조 2) 경상도절제사로 왜구를 막아냈다. 태조가 영흥에 은거하자 전투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속죄하고자 중이 되었다. 이성계가 일찍이 “투란(豆蘭)의 말달리고 사냥하는 재주는 사람들이 혹시 따라갈 수가 있지만 싸움에 임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데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용장이었다.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이상재 충신정려문은 이상재(1607-1636) 선생의 충절을 높이 기르기 위하여 세워졌다. 선생은 조선 시대의 문신이며, 충신이다. 자는 문거(文舉) 그리고 본관은 부평이다. 이상재 선생이 용인을 지나 험천(險川: 현 용인시 풍덕천)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적군의 습격을 받아 모두 겁을 먹고 두려워 선봉이 무너지고 후진 쪽의 최진립 장군도 전사했다. 선생은 대장정세규에게 대책을 묻자, “피하자.” 하므로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신하는 마땅히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이 신하의 직분입니다.”하고 “관인을 마줄에게 주며 이것이 나라의 공기이니 가지고 돌아가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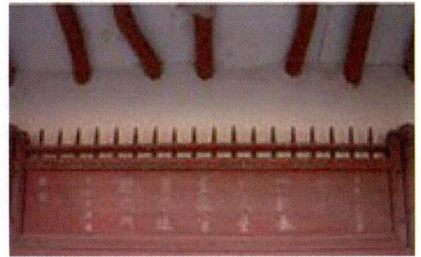
충신 이상재



어머니께서 분만으로 혈허병(血虛病)을 앓게 되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생께

서는 목욕하고 신에게 기도를 드림은 물론 하늘을 향해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였다.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가물치가 제일 좋다고 하나 때마침 깊은 겨울이라 물은 단단히 얼어붙었으나 선생은 곧 석천(石川)의 옆으로 가서 얼음을 깨니 가물치가 틈에서 뛰어나와 이를 얻어다가 어머니께 달여 드린 후 과연 효험이 있어 완치되었다.” 부친께서는 해소병으로 기침, 가래가 심하였는데 밤마다 부친 곁에서 돌보다가 많이 가라앉은 후에라야 물러났다고 한다.

호자 최정린



외삼미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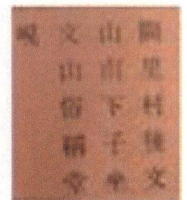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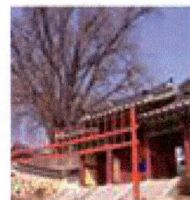
한국의 고인돌은 내부에 무덤방이있는 경우가 많아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돌집’이라는 의미로 석봉(石棚)이라 하였다. 한국은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며, 중국은 요동반도일대와 길림성, 절강성에분포한다. 일본에서는 규슈북서부에 고인돌이 세워졌다.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된다.

한국의 고인돌은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 미송리식토기(美松里型土器)와 함께 고조선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에 해당되며,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호남지방의 2만여기를 비롯하여 약 4만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는 세계 모든 고인돌 수의 절반 가량에 해당된다. 전남 화순, 전북 고창 및 인천 강화의 고인돌들이 2000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평양,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고인돌이 세워진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1세기 이후로부터 철기 시대 이전의 기원전 3세기까지의 시기에 집중되며, 요동 지방은 그보다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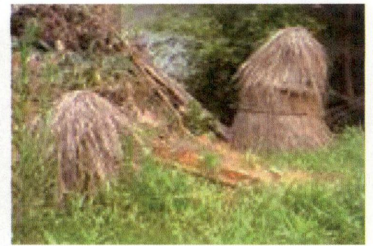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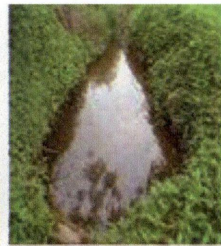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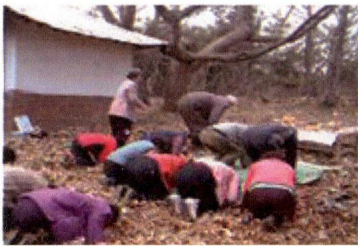
공자의 64대 孫 공서린(1483~1541) 선생이 후학지도를 위해 세운 곳으로 지금은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공서린선생이 후학을 지도할 때 은행나무에 북을 달아 놓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깨우쳤는데, 그가 죽자 은행나무도 말라 죽었다고 전한다. 정조가 화산에서 바라보니 많은 새들이 슬피 울며 은행나무 곁으로 모여들었고, 이를 괴이하게 여긴 임금이 가까이 가서 보니 죽은 은행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關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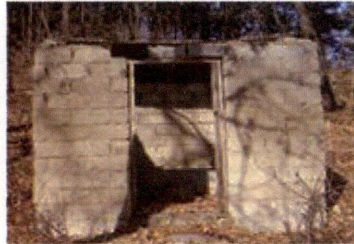
있었다고 한다. 정조 17년(1792) 이곳을 공자가 살던 노나라의마을 이름을 따라 궐리로바꾸고 사당을 세운 후 '궐리사'라고 했다. 고종 8년(1871)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00년 다시 세우고 1981년 강당을 세웠으며, 1993년 중국 산둥성에서 기증 받은 공자의 석고상을 모셨다. 논산의 노성 궐리사와함께 우리나라 2대 궐리사로서조선 후기 사당형식을 잘 보여 주는 곳이며, 해마다 지방 유림들이 모여 봄·가을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오산의 공동체 문화



가수리 둥방

터주와 엽



가장동

궐동

지역의 (문화)자원은 지역의 역사이며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마을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자원 ⇒ + 이야기 ⇒ 자랑거리

Amenity ⇒ Storytelling ⇒ Contents



김용국

(사)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문학박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아시리에서 1916년생 아버지와 1919년생 어머니 사이에서 1964년에 태어남. 강화도 외포리 꽃창굿을 연구하여 박사가 됨. 지역을 조사하여 많은 책을 냈고, 구비문학과 민속을 연구하여 여러 논문을 씀. 공동체문화를 공부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음.

여 백

나만의 오산 속 우리 마을 키워드 찾기

과정

1

나만의 오산 속
우리 마을
키워드 찾기

‘나’는 어떤 지도를 만들까

마을큐레이터 양성 과정 그 두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마을큐레이터가 되기 위해 첫걸음을 떼는 워크숍에서는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와 달리 나이를 밝히는 것은 지양하면서 이번 과정에 대한 기대하는 바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다른 이의 자기소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키워드로 기록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자신의 이야기가 앞으로 제작할 마을지도의 주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류설아 퍼리실테이터 : 저희의 최종 목표는 ‘마을 지도 만들기’인데, 알고 계시죠? 마을큐레이터가 되려고 오신 여러분들이신데 마을큐레이터가 뭐였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을큐레이터는 무엇일까요?

이석환 :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려운데요. 마을큐레이터는 우리 오산시에서 그동안의 역사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류설아 : 정답은 없지만 정부의 모든 도시재생류 정책의 실패 끝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마을사람입니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다보니 마을이 되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마을큐레이터라는 키워드가 떠오른거죠. 우리의 결과물이 지도 만들기라고 정해져 있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 먼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 과정을 마을큐레이터가 지향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자랑거리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거죠. 박물관의 큐레이터 학예사는 일로서 모든 것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잘 보여주고 전달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큐레이터도 마을, 오산의 무엇인가를 수집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정리해서 나부터, 내 가족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내는 과정.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며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등등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그걸 나눔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동네에서 제대로 살아보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발을 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이름, 사는 곳을 보통 얘기하지만, 성함 말씀하시되 나이는 말씀하지 마세요. 꼭 들어가야 할 마무리는 오늘 이 수업에 올 때의 마음,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주세요. 자유롭게 하시고, 발표하시는 분께 모두 집중해주세요. 발표하는 분의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한 단어, 키워드로 기록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희 : 안녕하세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기다려지고 기대감이 커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의 씨족사회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문화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왔어요. 마을큐레이터를 오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고, 이런 것이 우리가 큐레이팅이 아닌가 강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내가 해야하는 공부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퇴계 이황의 20대 자손으로서 저희 어머니가 의성김씨 종갓집 서종가 외동딸이셨어요.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문화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나를 지키고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 대한 자부심과, 제가 살면서 조상과 고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사회 생활할 때는 키도 작고 못생겨서 부모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안동에서 태어났고 저희 조상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 그래요? 대단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제 저는 오산에, 우리 마을에서 함께 문화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활이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 아니면, 오산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설아 : 질문하실 분 안계신가요? 그럼 일단 제가 해볼게요. 오산에는 언제 오신거예요?

이규희 : 한 30년 됐어요. 84년도에 결혼 때문에 왔습니다.

김영순 :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반가 규수 같으신데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이규희 :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잘 안 떨리거든요. 단체장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떨려요. 왜냐하면 오늘 내 가슴 밑바닥의 순수한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의성김씨 종갓집 따님이셨다고 했잖아요. 의성김씨 책에 보면 요즘 요리책에 운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적을 제 가슴에 품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2017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도 외동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남겨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뿌리를 잊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리고추장이 안동에서 조금 유명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고추장을 담궜어요. 그런데 제가 업으로 하지 않고 안동에는 시집을 오면 장은 절대로 갖다주지 않는데 장을 갖다먹으면 잘 못산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담가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느 날 고추장을 이렇게 담구면 한 말을 담구면 다 못먹어서 사람들을 퍼주고 하다보니까 맛있다고 해서 제가 담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하는 말이 전통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기업으로 제가 전통장을 행자부에 지정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내 삶에 된장, 고추장 하면서 죽을만큼 고생했어요. 일하다 죽은 귀신은 없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통

장이 안정이 돼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저는 업이라기보다는 전통을 지키고 누군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어서 오산에서 문화원에서 관심도 있고 해서 내가 오산에 살면서 나 하나가 조금이나마 이런 것을 공부해서 동네에 서로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요.

류설아 : 잘 듣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아마 처음이셔서 떨리고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분으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김영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인상적인 부분을 기록해주세요.

김영순 : 반갑습니다. 저는 세교에 살고있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을큐레이터라는 것을 모집한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큐레이터가 미술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걸로 알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한 분야에 발을 들이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출석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저는 이 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곳에 왔답니다. 저는 오산 세교 신도시 생기면서 들어와서 오산에 온 지 거의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산이라는 동네가 결혼하기 전에 엘지 이노텍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오산이 낯설지 않고, 저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자그마한 오산이라는 도시에 왔는데 오산 사람들이 의외로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오산에 대해서 모르는데 ‘오산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궁금했어요. 살다보니 오산이라는 동네가 정감이 있어요. 제가 큰 도시에서 살다와서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정감이 있고 한발짝 건너가면 아는 사람에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요. 의외로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오산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오산이 정말 유서깊은 도시이고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수원이나 화성은 큰 도시이다 보니까 수원에는 화성이라는 정조대왕이 있고, 화성도 발견된 문화유적지가 있어서 그쪽이 더 훨씬 문화도시고 훨씬 더 큰 도시고 문화적으로 더 바라보기

가 바람직한 도시가 아닌가 그랬는데 막상 우리 이규희 선생님 말씀하신 문화는 나를 지킨다 그 말에 문화가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큐레이터라는 게 작지만 크게 우리가 같이 참석해서, 오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한 다면 인근의 수원이나 화성 같은 도시 못지않게 정말 아기자기하면서도 알차게 작은 소도시로서 마을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세교에서 살다가 다시 수원으로 이사 갈 생각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 내가 오산에서 자리잡은 게 정말 잘했고, 남은 생을 오산에서 뿌리박고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산을 위해서, 오산의 문화도시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면 저는 작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발 빠르게 노력할거니까 여러분들도 다같이 동참하셔서 함께 마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희 : 선생님께서는 시민대학도 다니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일하고 싶으신지?

김영순 : 오산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열정과 시간입니다. 저희 50대 같은 경우가, 오산이 교육도시다 보니 젊은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데 신경을 쓰지만 저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나 오산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노인층이나 젊은 세대의 젊은 역할을 하면서 오산이라는 도시를 활력있게 활성화시키고 능력 한도내에서 무슨 일이나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류설아 :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제분들은 결혼하셨나요?

김영순 : 큰 딸은 결혼했고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류설아 : 다들 적으셨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공유할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다가 짧게 짧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해길 선생님입니다.

임해길 : 안녕하세요 임해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역사생태강사로 활동중입니다. 3년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쉬다가 올해부터 다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를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되버렸어요. 장,단점이 눈에 띄어서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산에 이사온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서울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해도 잠깐씩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산에 이사온 지 10년이 지나도 오산 지리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었고 내 마음에 오산의 역사나 문화가 궁금해지고 찾게 됐어요. 오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맞아서 이번에 연이 닿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설아 :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구요. 질문 있으신가요?

김영순 : 해설사이신가요?

임해길 : 해설도 하고요. 아이부터 성인까지 강의를 하고 강사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내강의도 하고 현장에 나가면 역사체험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안가본 곳 없이 다녔습니다. 북한은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용건릉에 간다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것을 해설을 하고 아이들하고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생태를 겸하게 된 것은, 궁궐에 가면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왜 여기 심어져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태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재미없고 머리아픈데 생태에 대해서, 나무까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많이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머님들이 오세요. 어머님들이 더 재미있어하시고,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도 어머님들이 더 귀담아 들으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 : 해설사만 알고 있었지, 이런 분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임해길 : 저 같은 경우, 안동같은 곳은 횡수를 세기가 어려울만큼 자주 갔습니다. 호호호. 아마 현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봤을 겁니다.

류설아 : 자기소개하실 때랑 후반부 얘기하실 때 억양과 표정이 달라졌어요.

임해길 : 오산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고, 이런 것을 알면 더 사랑이 넘쳐나거

दन्यु. 오산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류설아: 이게 다 지도로 만들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네 번째 김현학 선생님입니다.

김현학: 저는 오산에 산 게 30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90년대의 오산은 너무나 컨츄리였습니다. 인프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에 가서 밥벌이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잠자려는 들어와야 되니까 예휴 언제나 여길 뜰까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월드컵 있고 오산이 조금 개방이 되고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역시 문화에 관련한 건 없었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문화적인 활동을 하려면 늘 서울이나 수원에 가고 그랬어요. 2010년대 들어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교육도시, 이러면서 갑자기 어메이징하게 오산이 문화인프라가 높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겠다는 감이 왔어요. 그러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 이런 말을 보게 됐어요. 여태까지 90년대와 2000년대는 준비기간이었고,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오산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활동할만한 요소들이 눈에 띄면서 저 나름대로 조금씩 오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고 30년동안 우리 아이들을 오산에서 키우고 했는데 경기도민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오산 뭐 볼 게 있냐 그게 오산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저는 그게 와닿아요. 거창하게 할 건 없고 남은 시간들을 오산에서 생활하면서 오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문화원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류설아: 질문 받을까요?

이석환: 앉아계셔서 성함이 잘 안보이는데 성함 좀.

김현학: 저는 김현학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 울렁증이 있어서요.

류설아: 원래 어떤 걸 해오셨나요?

김현학: 많은 걸 알려고 하면 다쳐요. (웃음) 저는 기업체 역사문화체험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LH나 중부발전, 서부발전, 기업체에서 강의하다가 스카웃 되어서 그 분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류설아: 자, 다음 자기 소개하실 분 자발적으로 없으신가요?

지은정: 일어서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정이라고 합니다. 김

현학 선생님이 수원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계신데 저는 오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저는 자기소개할 게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류설아 : 질문하실 분?

이규희 : 문화해설사 하시면서 오산의 어떤 곳이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곳인가요?

지은정 : 다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잘 안가는 마등산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팔봉산이나 이런 곳들은 높아서 저는 힘든데, 마등산은 완만하고 코스가 정말 다양하고 이름도 너무 예뻐요. 봄에 진달래가 쪽 피면 저희 아들이 7살 때 그 길을 처음 가보고 엄마, 여기는 영화에 나오는 곳 같아라고 말했어요. 마등산이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이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긴 정말 편안한 느낌의 소나무들이 아름다워서 여름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원해요. 다들 독산성도, 궤리사도 많이 가 보셨지만 저는 마등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지선 :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선이구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 말씀하셔서, 저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구요. 저는 나이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오산에서 산 길로 치면 제가 제일 오래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산에서 자녀들도 키우시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직접 오산천에서 풀 뽑고 궤리사에서 그네타고 놀면서 컸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를 수원에서 나왔고, 오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오산에 산다고 하면 차가 언제 끊기냐 이런 걱정. 롯데리아는 있냐 이런 것들로 놀림거리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오산을 벗어나지 않고, 결혼도 시청 앞에 있는 오산에 있는 예식장에서 했고, 오산과 함께 컸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유럽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여러 번 가다보니까 처음엔 상들리제 거리, 보이기는 가까워도 도착하기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이런 곳을 보면서 큰 도시가 나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암스테르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더 매력을 느꼈거든요. 저도 오산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결국엔 오산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아기도 오산에서 커가고 있어서 저도 같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문화원에 인연이 닿아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요. 처음 해설사를 하게 된 것도 아시는 분이 수원해설사를 하고 계셨는데 오산에 현수막이 딱 붙었길래 오산에서 해설사를 하게 됐고 제게 오산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가깝게 오산을 소개하면서 소소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큐레이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설아 : 나이가 궁금해지네요. 이 분만 물어볼까요? 오산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박지선 : 79년생입니다. 아기는 네 살이에요. 저는 다른 데보다 오산이 더 아름다움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딜가나 자랑합니다.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문화재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맘음터나 시청의 아이들 놀이터가 젊은 엄마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이 많아요. 수원같은 곳은 예산이 크지만 적절하게 분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산은 문화적인 혜택이 체감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이 자랑스럽습니다.

류설아 : 어떤 분이 궁금하세요? 네, 다음 고찬영 선생님입니다.

고찬영 :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되게 긴장했어요. 앞의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지고 진짜 떨렸어요. 저는 고찬영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약속이 4곳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여기를 왔어요. 마을큐레이터 되기 현수막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다 모집이 됐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가 아는 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셔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제 고향이 추자도예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제주도에서 배타고 또 들어가야 되요. 예전에는 목포에서 4시간 배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비행기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추자도는 중학교까지만에 없어서 고등학교는 육지로 나와야 되요. 나는 육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89년도에 오산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는 흑백이었고 지금은 칼라로 변했어요. 그때는



오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오산에서 결혼을 하고 살다보니까 제 2의 고향이 되면서 애착이 생기더라구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해 참 안타깝더라구요. 개발되기 전에 우리문화를 보존하면서 개발을 했으면 타지역 사람들도 오산을 많이 찾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컸어요. 저는 문화가 어른들만 같이 하는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댄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몸매는 이래도.

저는 아이하고 어른하고 장애인 분들과하고 같이하는 댄스를 좋아해요. 그런 발표도 많이 했고. 제가 하다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을, 타지역 강사들이 오산에 와서 뭘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을큐레이터를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타지역 선생님들에게 오산을 알

려야겠다. 문화마을로 오산을 알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잘 하는데 입으로 하는 건 잘 못해요. 함께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 댄스 한 번 보여주시죠.

고찬영 : 어깨에다 손 올리시고 어깨를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잘 합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쪽 늘리시고 위로 해서 쪽 늘리시고.
감사합니다.

이현욱 :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시청 부근에 사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까지 해외 프로팀하고 매치하고 와서(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졸려요. 그래서 상당히 경청을 잘 못했어요. 말이 헛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8년도 4월 30일에 전역 했어요. 그 후 게임프로팀을 시작하고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스트리밍하면서 TSM이라는 게임단장인지 감독이 미국쪽 팀인데 저를 스카웃했어요. 스카웃을 당하고 영화 존윙 아세요? 요번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존윙이라는 게임을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걸 해서 제가 이벤트전에서 승리해서, 노트르담 대성당 불탄 거 아시죠? 제가 익명으로 100만 원을 후원을 했어요. 여름이벤트전에서 또 승리해서 50만원 고아원에 넣었어요. 한국, 국내에, 동남아도 게임잘하는데 동남아친구랑 같이 했어요. 여기에 지원한 동기는 원래 제가 역사학과인데 휴학중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도 터키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가이드님이 너는 영어도 잘하니 반자유여행으로 다녀라고 하셔서 앙카라에서 2일정도 머물다가 버스타고 합류해서 여행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왔어요. 두서없이 말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순 : 게임 프로선수세요?

이현욱 : 예비인데, 개네가 휴가같은 걸 줘서 지금 휴가기간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TV랑 비슷한 건데 해외에 플랫폼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류설아 : 천천히 알아가도록 해요. 역사학과 휴학 중이고 터키에서 잘 놀고 잘 돌아왔고 어제 새벽까지 게임하셨다. 이런 얘기였어요. 좋은 얘기를 안 좋게 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오산의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수업을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이현욱 : 제가 역사학과 다니는데 큐레이터에 지원서를 냈는데 시험 한 번 낙방했어요. 오산 시에서라도 활동하면서 천천히 성장해보자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은정 : 모든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프로그래머. 연봉이 얼마예요?

이현욱 : 알려주면 안되요, 비밀이에요. (웃음) 일반 회사원 정도예요. 이석환 선생님 다음으로 해주세요.

이석환 : 안녕하세요 이석환입니다. 제가 오산에 이사온 지 한 22년정도 됐네요. 그 전에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살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오산으로 이사오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인천같은 곳에서 큰 화물차들, 공장매연 그런 것만 보다가 오산에 오니까 차타고 5분만 가면 논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차를 아무데나 세워두고 제 볼 일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이 들어서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제가 직장이 좀 멀어요. 성남까지 매일 매일 다니고 있는데요, 기름값, 도로비 따지면 성남가서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인데 오산이 좋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거구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지인이 오산문화원에서 문화답사를 같이 가자고 해서 한 번, 두 번 너무 재밌어서 계속 오게 됐고 매달 그게 기다려져요. 그러는데 마을큐레이터에 대해서 그 지인이 이야기하고 저한테 한 번 참석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강의도 듣고 이야기도 하게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구요. 여러분들 매주 밝은 얼굴 보게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남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 쪽에선 제가 오산에 산다고 하면 제일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행장이 있는데 시끄럽지 않느냐 군부대에 미군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오산에는 예비군 관리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도시이며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영순 : 성남으로 직장 다니시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활동하실 수 있는건가요?

이석환 : 저는 출퇴근 시간이 좀 늦습니다. 성남에 2시까지 갔다가 12시에 내려옵니다. 저는 저녁형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류설아 :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석환 : 약국에 근무합니다. 약사는 아니고요, 병원에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저희는 약사님들이 13명이 계시고 전체직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미정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미정 :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정이라고 하구요. 저는 한전 콜센터에 근무합니다. 오늘도 어제 야근하고 집에도 안가고 여기 먼저 참여를 했어요. 오늘 사실 집수리 봉사가 있는 날

인데 거기도 못가고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문화 이런 건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이웃하고 더불어 사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은정 : 한전인데 밤에도 일을 해요?

이미정 : 아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하구요,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야근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낮에 나를 찾고 저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박은영 :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이라고 하구요. 어제 늦게까지 한 잔 하느라고 지금 조금 힘든데 마이크만 잡으면 울렁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시택이 세종시인데 시택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기 전에 학예사라는 분이 오셔서 없어지는 마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셨어요. 그 날 집에서 먹는 반찬이 뭘지부터 생신에는 뭘 드시는지 일상의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을 하시더라구요. 학예사라는 분이 책 편찬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런 것도 하는구나, 큐레이터가 생소한 것이었지만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 분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30년 이상 이장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역사이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그 분과 나누던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엇그제 부산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감천마을처럼 달동네인 포천마을이란 곳이 있더라구요.

어떤 곳이냐면 달동네예요. 경사가 높고 문 열면 바로 방인 그런 곳이었어요. 포천마을



플랫폼이라고 거기가 썸마이웨이 촬영한 곳인데 사랑방처럼 노인들은 경로당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갈 만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놓으셨고 야경을 촬영할 수 있게, 쉼터같이, 공방도 하고, 저녁에는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을만큼 그런 걸 해놓고 외부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놨더라구요. 전에는 그런 곳이 있으면 단지 사진찍고 화장실 있으면

볼 일이나 보러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수업을 듣고 이런 거구나. 아는만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한정식 잔칫상에 보면 굴비나, 갈비나 먹음직스럽고

훌륭한 음식들 많지만 가장 작은 간장종지 하나 꼭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듣고 뭘 해야겠다보다는 이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례 :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례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수업들으셨던 분이 오산에 대해서 새로운 걸 너무 많이 알았다고 좋다고 해서 오늘 왔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만 해가지고(웃음) 좀 그랬는데 듣다보니까 모르셨던 분들, 알고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산에 이사오게 된 지는 2002년에 이사를 왔어요. 아까 2002년도 말씀하시면서 2005년도 운암뜰 생기면서 오산이 조금씩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신랑이 직장이 안성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안성까지 출퇴근 계속 하다보니까 2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안성까지 내려가자고 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했고 중간지점이 오산이라 오산에 이사오게 됐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어릴 때는 아이들 키우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구요. 아이들 어렸을 때 중앙도서관이 생겼고 보건소가 생기고,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 같이 빌려서 보게 되면서 조금씩 오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살림하고 아이키우고 어린이집 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살면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 오산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오산에 제가 살고있는 운암단지만 알지, 그 옆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안갖고 있다가 제가 조금씩 활동하면서 오산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어느 도시보다 오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 서울이어서 서울다녀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평온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오산이 조그만 도시지만, 문화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씩만 더 첨가를 하게 되면 다른 도시가 못하는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강남지하상가를 갔는데 지하상가 추천합니다. 가게절약에 도움이 되실거예요.

유영희 : 안녕하세요 유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남 앞에 서는 게 체질이 아닌데 저는 10살 때 오산에 와서 학교 다니고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산을 한 눈에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요즘에 친구따라 문화원에 인문학기행 여행을 다니다가 접하게 된 게 시초가 됐어요. 문화원에서 운영위원으로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고, 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집에서만 살아서 모르는 것들이 참 많더라구요. 오산에 내가 오래 살았음에도 이런 것이었구나. 너무 오산에 대해서 몰랐구나를 느꼈어요. 저도 서울에 가면 차편이 문제여서 뒤풀이도 못하고 돌아오곤 해요. 오산 산다고 하면 타지 사람들이 다 멀리서 어떻게 왔냐고 그래요. 하는 일은 자영업자이고, 조그맣게 매실 농원도 갖고 있어요. 어제 매실밭에서 일을 너무 많이해서 몸살이 났어요. 오늘은 쉬는 중인데 부랴부랴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순 : 매실농원 어땀어요?

유영희 : 진위면 유원지 옆인데 산책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박은영 :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전시는 언제 하실건지?

유영희 : 전시는 서울에서 한 차례 정도 했고 아직 계획 없습니다. 오산 사진작가 협회 회원으로 있어요.

김영순 : 우리 문화탐방 같이 다니시는데 사진기를 항상 들고 찍으시더라고요. 취미생활인지 작가님인지 궁금했어요. 몰라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규희 : 예쁘게 찍어주세요. 늘 오셔서 찍어주시면 안되요? 하하

황인숙 : 반갑습니다. 저는 끝마무리를 할 정도로 조용한 황인숙이라고 합니다. 저 솔직히 마을큐레이터에,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아까 이 분이 오산에서 태어난 유일한 분인 거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산에서 태어났구요. 결혼은 물론 서울서 했는데 직장생활도 서울서 하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관계로 제가 효도 좀 해 보겠다고 다시 고향에 왔는데 지금까지 남편과 친정어머니와 아들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결혼을 했구요. 저는 현재 오산에서 커튼과 이불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래됐는데 작습니다. 확장을 잘 못하고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자유로워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마을큐레이터되기 프로젝트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느꼈어요. 내가 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소홀히 하면 안되겠구나. 앞장서서 해야겠다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저도 조그맣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 온 예전엔 싸장터라고 한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보고 들은 거 이렇다 있어요. 오산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기까지 눈으로 봐왔는데 지금 굉장히 자부심과 애착을 갖고 있어요. 오늘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동탄 2신도시지만 옛날에는 화성시였



어요. 제가 원래 거기서 살았어요. 오산은 고향이지만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시골이었는데 전국에서 다 알아줄 정도로 발전했죠. 제가 그 동네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흩어졌는데 그 때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이 몇 평이고, 강아지는 몇 마리, 나무는 몇 그루, 가족은 몇 명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했어요. 보상금을 줘야 하니까 고향을 떠난 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신도시로 멋있게 꾸며놓을 테니까 2년 3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오세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줘요. 마을분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고향에 사실 때는 다 건강하시고 문만 열어도 다 내 식구였고 낮익었는데 동지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니까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땅을 밟고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오산의 산 증인으로서 일일이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가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많아질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펼쳐가면서 호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정 :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걸 하는 지 정말 몰랐어요.

황인순 : 정확하게 해요.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 떠나고 신도시가 생기니까 기록을 남기지를 않으면 정말 모르는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조목조목 마을같이 살았던 마을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오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았던 운암들은 논바닥이었어요. 거기 물난리가 나면 말이 아니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화성시로 보따리 들고 이려고 갔어요. 물 건너서, 냇가천 건너서, 바지 걷어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향인 사람들이 왜 거기를 안 들어갔겠어요. 거기는 물난리 나면 물이 차는 동네였어요. 지금은 거기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오산이 튼튼하게 세워진 걸 보면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고 지금은 오산에 산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서현 : 안녕하십니까 이서현입니다. 황인숙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론 마을큐레이터시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셀프 줄눈 시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돈을 아껴보겠다고 셀프로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죽을 맛이에요. 새벽 2시까지도 하다보니까 망가져서 재시공도 해야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제 상황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저는 12~3년 전에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 강좌가 있는데 거기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다보면 오산은 굉장히 단체장도 많으시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오산에 처음왔을 때 인구 12~3만의 소규모 도시였어요. 그때만 해도 '화성시 살인사건 난 데 거기 옆이야' 라고 오산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화성



시 오산을 무슨 은계리 처음
제가 오산 왔을 때가 거기였
어요. 사람 돌아다니는 지하
도를 지나가면서 ‘어머, 무서
워’ 그러면서 오산에 내려왔
어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구요. 제 2의 고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
편도 서울에 있는데 오산에
어떤 모기업체 근무하다가
친구가 소개해서, 아무튼 그
렇게 왔는데 제가 강사활동

을 하면서 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한테는 오산이 애환이 많은 도시예요. 결혼해서 오산
에 왔는데 6개월 살다가 오산을 떠났는데 오산에 살면서 매일 울었어요. 빨리 오산을 떠나
고 싶어서. 그랬다가 다시 남편 사업 말아먹고 오산에 다시 와서 사는데 정말 매일 울면서
그러다보니까 오산에 정이 눈꼽만큼도 가지 않고 미치도록 싫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오산에 온 지 23년만에 처음으로 제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삿날을 며칠 정해놓고 길거리를 가는데 마을큐레이터 플랜카드를 보
게 됐어요. 집을 살 때 저는 여기를 제 2의 고향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산을 알아보
자,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실천하면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산을 위해서 뭘
하러기보다는 단지 제가 좀 더 행복하고 알고 싶어서 이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정 : 어디로 이사가셨어요?

이서현 : 한양 수자인으로 이사갔어요. 아들과 2인1조로 거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셀
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돈 안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류설아 : 자기자신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내놓기가 제일 어려운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질문자가 되
어야 하세요.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신계현 : 안녕하세요 신계현입니다. 뭘 시작할 때 처음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끝을 장식해야 돼서 부담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말을 꼭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이것에 어울
리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제 지난 얘기를 얘기하다보면 10년전에, 20년전에,

30년전에 이렇게 기억이 엄청 길어지는거예요. 저도 오산에 온 지 20년이 된 거 같아요. 저도 잠깐 아이들 키우고 가려고 했다가 여지껏 있게 됐어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일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함축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어필하고 싶은데 그런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저 역시도 우연히 마을큐레이터 플랜카드를 보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일이라 제가 남촌오거리쪽에 사



는데 거기 한창 개발을 한다고 막 철거를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아깝다고 지금 사람들은 옛날 거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걸 좋아하는데 저 건물, 누가 좀 사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만들면 좋을텐데 건물을 허무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리고 있는데 어느 분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너무 싫은거예요.

동탄에 가면 아파트가 많은데 정말 별로예요. 아파트 때문에 산이 깎여 나가고, 길을 내려고 2-30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쁜 길에 꽃을 심어서 일상생활을, 마을을 일구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을큐레이터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왔습니다.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류설아 :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 번씩 더 쳐 주죠. 제가 준비한 오늘 할 이야기들을 하나도 못하고 가게 됐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를 느꼈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제 키워드 하나씩 다 잡아놓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그걸 다 쓰고 분류해볼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주제가 있겠구나 하고 나올겁니다. 그 주제별로 지도제작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오늘 잘 듣고, 질문했고, 감동받았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공감의 토대가 된 이야기를 지도로 만들어낼거예요. 나와 상대의 존재 자체가, 오산이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지도의 주제를 생각해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평범하기보다는	유별나게
유별나기보다는	각별하게
각별하기보다는	특별하게
특별하기보다는	비범하게
비범하기보다는	나답게

”

여 백

계획 세우기

사례 공유, 주제 찾기, 팀 정하기, 조사 방법 논의

과정

2

계획 세우기



‘지도는 권력’이다. 그렇다면 오산 마을 큐레이터가 만들고 싶은 지도는 무엇일까? 수강생은 지도에 대해 짧은 강의를 들은 후 지난 시간 서로의 자기 소개 속 키워드를 꼬집어내며 마을지도의 소주제를 찾고 분류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오산 마을 지도, 그리고 이것을 제작할 팀이 정해졌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수강생 모두 열의를 불태웠다.

류설아: 지도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건 세계지도입니다. 위쪽으로는 유럽, 아래 쪽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시죠? 지금 보시는건 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메르카토르가 그린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세계지도하면 이런 지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어떠세요? 같은 세계지도이지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죠? 좌우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도는 1970년 독일의 아르노 페터스라는 역사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도의 특징은 그린란드가 실제보다 6배 이상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중심국가들은 원래 크기보다 크게 그려져있거나 중심에 가까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는 아래에 있고, 유럽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려져있다는 것은 발밑에 있다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는 느낌이 은연중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위아래가 바뀌어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거나 생각자체를 하지 못했죠. 지도제작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춰진 지도에 익숙해져 이런 상상을 못한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가 권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6세기의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에 대해 아르노 페터스는 ‘백인 우월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근거한 과거의 세계지도와 달리,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심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도를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이 기존의 세계지도에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고, 심리적 거리를 재설정하고자 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도는 객관적 기하학적 도식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투영하는 정치적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마을큐레이터에서 여러분이 만들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어 여러분의 관점으로 지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지도는 세계의 역사와 정치를 묘사하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의 반영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지리학은 없다’ 전 세계인이 만족하는 객관적인 지도는 결국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리시면 됩니다.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들이 반영될 테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도를 그리겠다고 하고 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산, 내가 사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을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발견하자는 게 이번 과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건 항상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셔서 내가 보는 시선에서 내가 관심가는 이야기,

여러분이 권력자가 되어서 여러분만의 지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당연히 생략된 것도 있고, 누구는 공감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취향과 관심이 담긴 이야기가 있는 지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앞 시간에 자기소개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인상적인 부분을 기록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줄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A: 김영숙 선생님 세교신도시의 문화를 찾아보자 말씀하셨고, 김해길 선생님 역사 생태활동을 오산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B: 저는 오산이 다 개발이 되고 나서 이사워서 그 전에 어땠는지 몰랐습니다. 개발전에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 저는 사진찍으시는 분이 인상깊었는데 오산의 사라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기록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D: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면 기록을 남기게 되어있다는 말이 인상깊어요.

E: 낫술과 댄스요

F: 장 담그는게 요즘 쉽지 않은데 아직도 장담그시는 분이 있다는게 인상 깊었고, 젊은 프로게이머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마등산이 좋다고 해서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G: 저도 전통 된장, 고추장 담그시는 분이 기억에 남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H: 줄눈시공 배워가면서 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면서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내 집을 직접 하는거니까 기대감이나 뿌듯함이 굉장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I: 낫술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J: 이규희 선생님이 퇴계이항의 20대 자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는게 인상깊었고, 김영순 선생님이 오산의 문화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신게 인상깊었고, 임해길 선생님은 생태와 연결해 오산을 설명하시는게 인상적이었고, 이현욱 선생님은 역사 큐레이터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어서 이번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인상깊었고, 박지선 선생님은

어렸을땐 오산에 대해 열등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다시 오산으로 돌아와서 오산을 지키겠다는 게 인상깊었습니다. 이석환 선생님께선 오산에 군부대가 없다. 예비군장만 있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들어설 때마다 산이 깎여나가는게 안타깝다는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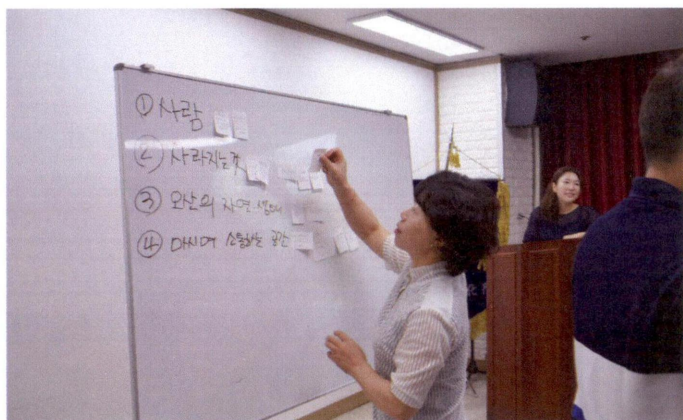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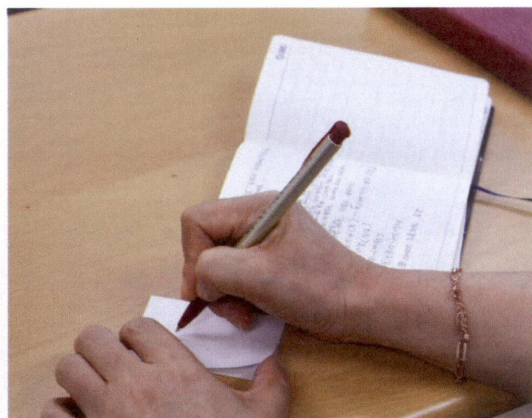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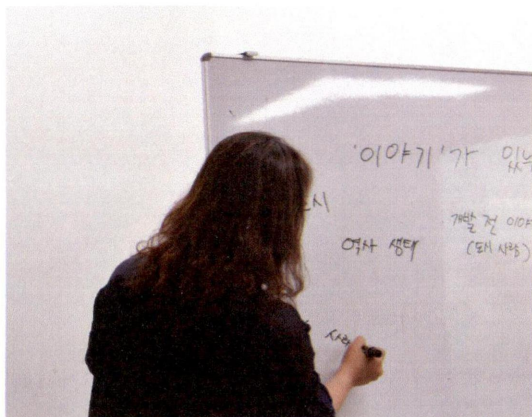
K : 세교신도시와 사람간에 소통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L : 토박이와 이주민의 어우러짐이 있다는게 오산의 특징 같았습니다.

류설아 : 자, 그럼 이제 3,4분씩 조를 짜볼게요. 보시면 게임프로그래머, 전통 장 담그는 사람, 기술적인 걸로 공사하시는 분 이렇게 독특한 직업이나,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지도를 만들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더 찾아봐도 좋고 이 안에서 인터뷰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자원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사라지는 것에 대해 기록하는 지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마등산과 생태, 자연을 묶어서 오산의 자연생태라고 하겠습니다. 뭘 찾으면 좋을까요?

M : 오래된 느티나무 같은거요. 롯데물류센터 옆에 2~3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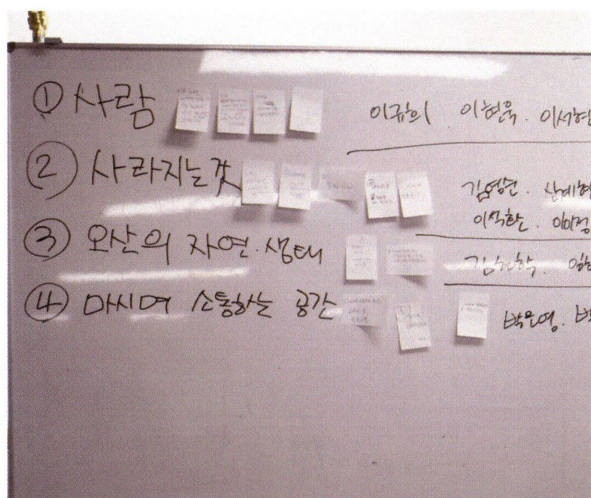
류설아 : 수령이 깊은 나무들에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조사하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수원에서 제가 기자생활할 때 각 지역의 수령이 높은 나무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는데 수원의 영통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도 아직도 위령제도 지내고, 마을사람들이 이사 갔다가도 그 나무 때문에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벼락맞아서 쓰러졌어요.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런 나무들을 찾아서 기록해서 알린다면 우리의 재산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 낯술, 소통, 댄스 이런 키워드가 보이네요. 술을 왜 마시나요? 단순히 술이 좋아서? 사람 만나려고 많이 마시죠. 춤도 마찬가지로요. 옛부터 음주가무는 빠질 수 없는 관계맺기 방법 중 하나였죠. 그럼 우리 오산에서 낯술하기 좋은 곳 한번 찾아볼까요? 마시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찾아보면 좋겠네요. 분명 오산만의 특별한 카페가 있을 수도 있을거고, 낮에 일찍 문 여는 술집을 찾아봐도 좋겠네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지도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포스트잇에 마음속으로 어떤 지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보시고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거나 나만 알고 있는 사람, 장소, 이야기 등을 적어주세요.



칠판에 적힌 4개 주제 중 관심 있는 하나를 골라 자신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이야기와 이름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의외의 팀원 구성에 다들 놀라면서도 즐거워했고 오산의 새로운 이야기도 나왔다.

류설아 : 어떤 분은 아파트 경비실에 게시는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써주셨네요. 사라지는 것에는 제지회사 건물을 써주셨네요. 문화거리도 꽤 많이 써주셨네요. 전통시장 미시장도 있습니다. 오산에 남아 있는 성황당, 장승, 돌탑 등등 지금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비밀아지트도 있네요. 이렇게 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팀별로 팀명을 정하시고요 나눠드린 오산 지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소개하고 싶은 공간, 좋아하는 곳 등등의 상징을 정해서 스티커로 붙여 보세요. 팀별로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조는 **힐링아지트**로 결정했습니다. 재미삼아 낚시를 얘기하긴 했는데 낚시만은 아니고, 친구나 가족, 연인과 같이 갈 수 있는 비밀아지트를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힐링아지트라고 붙여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는 곳을 말씀드리면 사는 곳은 은색으로 표시하고, 가족들이 갈만한 곳, 연인, 친구갈 만한 곳을 색으로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독산성과 물향기는 가족, 친구, 연인이 다 같이 가기 좋아요. 오색시장은 친구, 연인끼리 가기 좋고, 요즘 핫한 아스달 드라마 세트장은 연인들이 가기 좋아요. 그리고 별빛터널도 있어서 프로포즈 하기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맑음터공원은 가족끼리 피크닉가기 좋습니다. 저희 팀원 각자가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딘지 얘기도 해봤는데 켈리사와 필봉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곳을 중심으로 세세한 스케줄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외곽쪽에 있는 곳이 서량마을인데 최근에 데크를 깔아서 걷기 좋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고, 먹거리도 많지는 않지만 걷기 좋은 곳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류설아 : 지도를 보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곳도 보이고, 나만 아는 지역도 보이네요. 물향기 수목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서 오히려 시청이나 홈페이지 가면 정보가 더 많이 있죠. 우리는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물향기수목원을 소개하더라도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 물향기수목원에 들렀다가 이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든지 코스형식으로 제안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선 힐링아지트라는 주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지트라고 하면 왠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같잖아요. 지도를 만드실 때도 잘 알려져 있는 곳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대한 매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가 권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도에 알려지지 않은 곳을 공개했어요. 그럼 이걸 보신 분들은



하나둘 찾아가고, 입소문도 날거고, 그럼 이 지역에도 카페나 먹거리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나 둘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과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간단한 지도를 만들지만 내년부터는 기획이 들어가요. 중요한건 내 시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힐링아지트팀은 고민하

실게 권역이 굉장히 넓은데 좁힐지, 길을 만들지, 어떤 코스를 만들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 발표하겠고 팀명은 **기억의 샘터**입니다. 샘터는 파면 팔수록 새롭고 물랐던게 나와서 기억의 샘터라고 정했습니다. 별표는 사는 곳, 자주 다니는 곳, 아는 곳, 소개하고 싶은 곳 장소를 표시했고, 화살표는 새롭게 알아보고 싶은 곳을 표시했습니다. 오산은 세교나 부산, 운암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 전설이나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새로 이사왔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고인돌공원에 할아버지, 할머니 바위가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구요.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인터뷰해서 꽃말로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새마대, 독산성 여기도 예전에는 초가집도 있었고, 50, 60살 되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에 사람들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사람들의 이야기나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고, 시장도 우시장도 있었고, 여



러 장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싶었고, 벌음동이나 탑동, 부산동 같은 외곽지역은 아직도 시골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도 사라지기 전에 이야깃거리를 발견하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오산에 제지공장이 많았는데 왜 많이 있었을까 그런 이유도 알아보고 싶고, 오래 사신 분이나 일했던 분을 찾아서 인터뷰해서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카페도 폐공장을 이용한다던지 옛날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지공장도 철거를 시키기보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설아 : 소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철거예정인 제지공장이라던가,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에 대해 조사한다던가. 대상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팀명은 **모더니즘**입니다. 현세대와 구세대를 조화롭게 잘 이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초록색은 팀원이 살고있는 장소이고, 화살표는 팀원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파란색은 조사하고 싶은 곳을 나타냈고, 빨간색은 충신 이성재를 모신 사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충신 이성재 외에 조사하고 싶은 명인이나 장인, 위인 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류설아 : 충신 이성재를 중심으로 주변인물을 조사하는 건가요?

모더니즘 : 이성재 선생을 중심으로 옛 인물들을 알아보고, 현존하고 계시는 인물들을 조사해서 옛인물과 현인물을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류설아 :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있게 주제를 정해서 3, 4명 정도 그 사람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지, 아니면 여러 인물들을 묶어서 조사하실 지 선택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인물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 배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재밌어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 : 작년 경기천년행사를 하면서 생활문화장인을 선정했었는데 오산에서도 4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분들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장인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선정한건데 사실 저도 그 장인 중 한명입니다.

류설아 : 모더니즘이라는 주제가 좀 어려워요. 팀원을 소개해도 좋습니다. 하기 싫은 인물 억지로 조사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알아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해봐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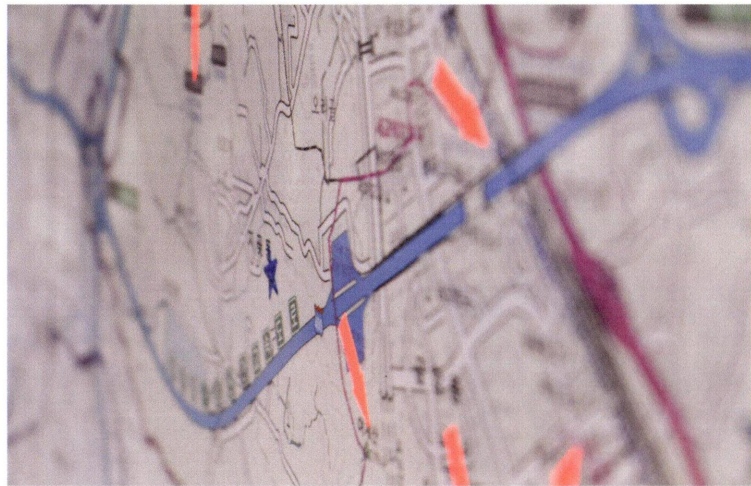
저희는 오산의 자연과 생태에 대해 조사할건데요. 중심은 오산천과 마등산, 필봉산으로 정했습니다. 이 표시들이 저희가 찾아보고 싶은 곳인데 오산천은 철마다 다른 색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연꽃이 한창이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다던지 이런 내용과 껀리사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껀리사 앞에 큰 은행

나무가 있습니다. 왜 은행나무를 거기에 심었는지 그리고 롯데물류센터 옆에 있는 마을의 수호목인 느티나무가 있고, 아직도 당산제를 지내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팀명은 오산천에 관한 옛지명이 오매라고 하더라구요. 까마귀오자와 매화매자인데 그래서 **오매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류설아 : 나무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조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삽화로 그린다던지 방법은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매사랑 : 전에 찍었던 사진을 모으면 어떨까요?

류설아 : 그것도 좋네요.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서 모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정신 없으시죠? 다음주에는 소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 백

현장 속으로

조사결과 발표 및 피드백

과정

3

현장 속으로



‘본격적인 팀별 조사 활동이 이뤄졌다. 현장에 나가기 전 퍼실리테이터로부터 다양한 마을지도 사례를 확인하고 인터뷰와 기록 방법 등을 들었다. 팀원들의 역할 분담부터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진 수강생들은 마을큐레이터가 되는 데 한 발 크게 나아간 모습으로 한층 진지했다.

류설아 : 오늘은 지난 한주동안 많이 걸어 다니시고, 사진 찍으셨죠? 1차 조사이기 때문에 감 잡고 맛만 보신건데 앞으로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쉽지 않으셨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담기도 어렵고, 생각과 다른 환경에 막막하기도 하고, 조원과 대화하며 설왕설래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즐기시면서 한달 후에는 전시입니다. 전시가 잘 되는게 목표는 아니고 우리는 잘 놀아야 합니다. 나도 잘놀고, 조원도 재미있고,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과정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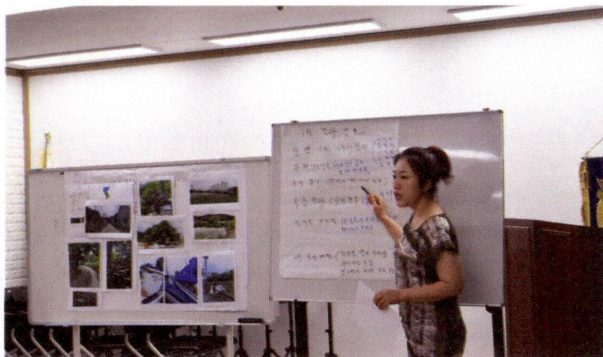
지난주 작업하시던 전지와 지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지를 받으시면 1차 조사 결과보고를 하실 준비를 하실 겁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은 팀명, 주제, 지도이름(가칭), 왜?, 수집결과(지도, 영상, 사진, 핵심적인 것),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 방향선회 계획, 장애물이 되었던 요소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율조사 기간입니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팀별로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3주 동안의 대략적인 2차 조사 계획을 간단히 세워주세요.

기억의 샘터입니다. 부산동 근처가 옛 시골길과 도시가 발전하는 곳이라서 역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해 팀원 5명이 모두 부산동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동네 한바퀴’ 라고 지도 이름을 정했구요. 목적과 동기는 부산동을 막상 가보니 시골길과 아파트가 들어서서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더라구요. 그래서 한바퀴를 돌면서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동네로 들어서니 벽화마을이 있었습니다. 옛집과 벽화가 예쁘게 있었는데 10년정도 오래되다 보니 주변 관심도 떨어져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관심이 떨어져서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부산동에서 당나무라고 오래된 나무인데 주변으로해서 로터리길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그 로터리길을 만들면



서 나온 쓰레기들이 주변에 널려있었습니다. 그래도 로터리길을 만들어서 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 너무 좋습니다. 동네길이 걷기도 좋고 예쁘더라구요. 이 집도 벽화마을처럼 조성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조사때는 가볍게 부산동이 어떤 동네인가 둘러보는 정도였고, 2차 조사를 나가면 과거 사진도 수집을 하고, 옛지명도 알아내고, 오래 사신 분들 인터뷰도 해서 동네에 안내 팸말이라도 남겨놓고 싶습니다. 대원동 꽃길따라 벽화마을을 다시한번 환경조성 해서 길을 잘 만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도 방치되어 있는 느낌인데 저수지까지도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시골길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이 조성되면 마을입구에 마을지도도 예쁘게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맛보기로 돌았고, 이제는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더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류설아 : 이야기가 있는 지도라고 하실만큼 오래된 이야기부터 지금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영상찍을 사람, 조원들의 사진, 설화조사라던지 분담을 하셔서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조 오매사랑 저희는 오산전을 탐방했습니다. 부산동이나 다른 곳은 저희가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산전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도보길이 아주 길더라구요. 금오대교부터 맑음터공원까지 도보길이 쭉 이어져 있어서 봄에 벚꽃축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고, 무궁화동산이 1.5km였습니다. 저희가 오산대교를 건너기 직전까지 무궁화가 별로 없어서 이게 무슨 무궁화동산이냐고 아니라고 막 엑스표를 치려고 했는데 다리를 지나니까 무궁화동산을 아주 잘 꾸며놔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연꽃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과 연꽃습지를 연결해서 여름꽃잔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들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가을에는 물억새 군락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철새가 많이 오니까 사계절 내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산천에 관한 식생을 알아보고 거기서 사계절 어떤 것을 즐길 수 있고, 축제까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고, 2차적으로는 보호수와 부산동의 당집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첨부할거고요. 별동의 은행나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산천을 돌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오산의 상징성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군데군데 포토존이 있는데 오산천은 없더라고요. 알림판과 포토존을 같이 해두면 오산천에 대한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류설아 :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계절이 잘 드러나는 오산천의 사진이 지도에도 잘 보여졌으면 좋겠고, 개선점에서 포토존을 말씀해주셨는데 중요한 지점인것같아요. 휴게시설이라던지 포토존이 없다는 제안을 가져갈 근거자료가 필요하겠죠. 지도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던지, 벤치가 몇군데 없다던지 그런 것들이 지도 안에 표시가 되어야겠고, 보호수까지 하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오산천을 중심으로 점 찍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1조 저희팀은 두 차례 만나서 인물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인 세 분을 찾아 뵙고, 조사했습니다. 팀명은 **미수범**입니다. 오산의 아름다운 손을 가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원은 이규희, 이서현, 이현욱, 황인숙 선생님입니다. 인물로 어떻게 지도를 만들까 처음에는 고민했는데 조사하다 보니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 미수범 체험 관광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목적과 동기 없었어요. 여기서 하라니까 일단 만나러 가보자 했었는데 만나다보니까 목적도 생기더라고요. 오산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생활장인을 발굴하고, 홍보해서 생활문화를 보존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오산의 관광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작장인 방문했을 때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오산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양평의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희는 냄비받침 만들었거든요. 창호문

짜 모양의 냄비받침이에요 흠을 파서 다 끼워맞추는 방식입니다. 저희 팀에 계신 이규희 선생님도 생활장인이세요. 실제로 이규희 선생님댁에 방문해서 요리실습도 같이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들러서 점심 때 쿠킹클래스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집결과는 '삶에 시간이 더해져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 이걸 제가 지은건 아니고 이규희 선생님 댁에 가니까 액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문구 자체가 미수범을 대표하는 문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물이나 개선점으로는 의외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규희 선생님이 장인들과 미리 연락하시고 사전 조율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오산시 시티투어와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설아: 장인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시고, 없을 때 제안하는 것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의 삶을 인터뷰 하실텐데 오산시의 특이한 기억이 있다면 그 삶과 지역의 접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제가 있어서 입체적인 전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분 만나실 때는 그분들 인생자체에서 오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꼬집어 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서현: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술장인 김유훈 장인은 어머니대부터 미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셨는데 오산시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채소장사도 정리를 하셨는데 재개발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산을 뜰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여기 정착해서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시장에 화장실이 잘 없는데 양조장에 무료화장실도 개방하셨습니다.

류설아: 말씀하신 내용을 텍스트화해서 잘 정리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사진이나 물건을 같이 수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조 **힐링아지트**를 소개할텐데 오색시장에서 먼저 꽃집통닭입니다. 닭갈비집인데 이름이 꽃집통닭입니다. 그집 아드님이 훌륭하게 자라서 유명합니다. 인명사전에 오를 정도로요. 근데 근처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있는데 보호가 미흡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놀던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오산이 교육도시인데 교육도시에 켈리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켈리사를 갔어요. 전시관에서 유래도 살펴보고 근처 음식점도 들렀구요. 어제 서랑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나서 마을소개를 받았어요. 시에서 테크길을 조성해놨더라고요. 다른곳은 한바퀴 돌 수 있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끊어져 있어서 다



시 돌아나와야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집하나가 있어서 사유지라 길 조성을 반대했데요. 이해도 되는데 시 정책과 또 사생활이 부딪치는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다시 궤리사 쪽에 와서 찻집을 갔습니다. 원래는 궤리사 근처에 한옥 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원룸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좀 아쉽고, 능이오리집과 할매식당

이 맛집이라 거기에 들렀다가 근처에 전통찻집이 생겨서 거기서 차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의 코스가 돼서 좋았어요. 장애물은 서랑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궤리사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아직 부족하고, 시장에서 유명한 집이 몇몇은 있는데 아직은 먹거리가 많이 없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랑동을 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 동장님도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거예요. 최근에 브런치 카페도 생겼는데 그게 핫플레이스더라구요. 점점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 같아요.

류설아: 왜 고민이 많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주제잡기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성들이 다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발표 들어보면 다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꽃집통닭도 그렇고, 궤리사도 그렇고 서랑동도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교육공간이



기도 하고요. 가장 공통적인게 교육인 것 같아요. 꽃집통닭도 음식을 만드는 철학과 아이를 교육하는 철학과 연결지어서 인터뷰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여성이나 힐링아지트로 키워드를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맹모삼천지교, 교육도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산의 교육콘텐츠를 제안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드백 이후 또다시 팀별 마을조사가 이뤄졌다. 두번째 발표에서 이야깃거리는 풍부해졌고 그만큼 지도를 제작하는데 고민도 깊어졌다.

류설아 : 8월22일 오늘 발표하실 때에는 전시할 때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전시를 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진도 있지만 글도 있고, 영상이나 이미지, 녹음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시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씀해주세요.

저희 4조는 힐링아지트라고 해서 낮에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사



했습니다. 먼저 시장과 켈리사, 서랑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큐레이터를 하면서 오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쪽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색시장 골목입니다. 닭갈비집과 칼국수집, 막걸리골목입니다. 여기는 돌교회라고 해서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꽃집은 이대희씨라고 세계인명대사전에 올라가 계신 분입니다. 천문학 박사이신데요, 세계인명대사전100인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천문학의 대가이신 분의 어머니가 이 꽃집닭갈비를 운영하십니다. 맛도 맛있지만 그분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시인데 이 분 어머니의 교육방식이 우리 오산이 문화도시로 가는데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나무인데 나무연령이 오래돼서 마을큐레이터가 우리 곁에 있는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원들끼리 이 나무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소원들어주기나 고민들어주기 이런쪽으로 이 나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구요. 여기는 켈리사인데 이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그 옆에 향나무가 벼락을 다 맞

아서 향나무는 피폐해지고, 덕분에 은행나무는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켈리사에서 강좌,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도시의 한 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링아지트라는 주제에 맞게 켈리사 옆에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담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는 서랑동입니다. 데크가 있고, 겨울에는 아이들 눈썰매장도 이용할 수 있고, 조그마한 동물원이나 독산성 모형같은 것도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프라는 카페인데 친구, 연인, 가족들과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4조는 이런 것을 같이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 뜻깊었습니다.

류설아 : 선생님 발표하실 때 중요한 이야기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보여주는게 큐레이터라고 생각하셔서 나무이야기까지 가신거예요. 그럼 힐링아지트 제목을 그대로 가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힐링아지트는 끝가지가 되었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셨고, 세월을 지켜가면서 모든 걸 지켜본 나무에게 묻는 형식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고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럼 제목은 바뀌어야겠죠? 힐링아지트는 팀명으로 하시고, 아까 4조는 팀명은 힐링아지트로 하시고, 지도명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내용 중에 '나무에게 묻는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게 결국에는 키워드가 나무인 것 같아요. 나무 옆에 오산의 인물, 맛집, 교육공간들과 연결이 되었는데 서랑동도 마찬가지로 작은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나무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준비하실게요. 아무래도 이야기 형식이다보니 글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나무가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상징적으로 들어가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열매처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 자체는 간단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열매를 맺어가면 풍성한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춰보고, 넘겨볼 수 있도록 만드셔도 좋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 가 보면서 느끼고, 알아가는데 정말 달라요. 닭갈비집은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알아주기 시작하면 더 관심이 모일 수 있잖아요. 서로 좋은 피드백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신 4조에게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2조 **오매사랑**은 당산나무와 오산천을 조사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다 당산나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주변이 공사중이었습니다. 롯데물류센터 뒤에 도로를 만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현장을 목격한 게 당산나무 2개가 있잖아요. 두 나무가 있고, 약간 젊은 나무 2그루가 더 있는데 나무가 좀 파괴돼서 다듬어야 될 것처럼 보이구요. 도로를 옆을 위주로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공원 가장자리에 나무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옆 나무는 다행히 모양새도 좋고,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이걸 시에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중이라서 아직은 어떻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훼손된 것만 시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나무가 원래 목적이 주민들이 소원을 비는 그러한 형상의 나무인데 그걸 활성화시켜서 예를들어 중국의 신사같은데 가면 소원비는 곳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겸해서 건강을 빌 수 있는, 미신 미신하지만 사실 민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존하면서 개인이 소원을 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훼손된 나무사진은 아직 안붙였는데 나중에 전시때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게 오산천입니다. 봄에는 벚꽃, 무궁화 단지, 억새단지, 청둥오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산에서 휴식처로 쓸 수 있는 곳이 오산천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여기서 합창을 했었는데 공연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서울의 청계천만큼이나 활용을 잘하면 이용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꽃길이 굉장히 좋은데 차가 다니기 때문에 벚꽃철에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던지 그런 길로 활용하면 좋겠고, 무궁화 단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고, 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청계천처럼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철교다리 밑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음용수도 없고, 커피숍은 있긴 하지만 이 다리 밑에 차 마시는 공간

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휴식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맑음터 공원에 공유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꼭 거기에 갖다두어야합니다. 반대쪽 지점에도 공유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림판이나 포토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설아 : 일단 당산나무는 별도 부록처럼 따로 준비해주세요. 오매사랑 큐레이터 결과보고서 별책부록처럼 작게 따로 준비해주시고, 지도에는 오산천만 들어가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기는 제일 쉬워요. 벚꽃길, 무궁화단지, 억새풀 사진으로 없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오산천에 대한 바라는 점, 개선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럼 이미 있는 것들은 사진으로 붙여주시고, 없는 것, 있었으면 하는 것은 그림으로 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하는 것들을 그림이미지로 기호화해서 왜 이렇게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지도와 바라는 지도 두 개가 공존하는 지도가 되겠죠. 현존하는 것은 사진, 바라는 것은 그림으로 정확한 위치에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익할 것 같은 제안이에요. 대신 사진같은 경우는 지점체크를 잘하셔서 무궁화단지 같은 경

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조 기억의 샘터는 부산동 길을 다 걸으면서 일일이 사진을 찍어봤어요. 벽화마을이 있는데 매화가 피는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벽화마을이 조성되어있는데 길을 다니면서 꽃길, 벽화마을 다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에는 조성이 잘 되어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입구에 보면 원사동길에서 시작해서 매화꽃길 마등산가는 길, 추억의 낭만길까지 길이 있는데 벽화를 길에 맞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길이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으니깐요. 어슬렁거리며 골목길을 추억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시간에서 두시간 정도 걷기 좋은 길이구요. 길은 벽화도 그려져 있고, 볼거리의 많은데 쉴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가다가 앉아서 쉬거나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포토존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처럼 이런 빈 공간에 의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걷기 좋은 길로 소문이 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끝에 마등산 가는 길이 있어요. 마등산이 상당히 좋은데 필봉산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갈래길이 많은데 안내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마등산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안내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몰라서 못가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릴 때 무궁화가 많이 피어있는 곳은 무궁화길이라고 표시하고, 동네 끝 쪽에 집이 세, 네 집 정도 있는데 여기는 개조심길입니다. 왜냐면 집마다 다 개를 키우더라고요. 동네주민을 만나서 여기는 왜 다 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동네의 끝 길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개를 다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 길을 지나면 집집마다 개 2,3마리씩이 난리를 하며 짖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개조심길이라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해서 개조심길, 무궁화길, 추억길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면 다른 문화마을, 한옥마을 못지않게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만 예전 시골 길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는 예전에 재인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도당곳을 크게 하던 곳인데 여기에 굿집이 있더라고요. 마등사에, 서낭당 앞에 있었는데 터줏가리가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곳도 보존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산 동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가마매라는 지역인데 지금은 부산동으로 바뀌었고, 원동은 옛날에 성호면이었을 때 원래 오산의 중심이 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구석진 외곽동네인데 이런 동네가 한 두곳 정도는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남겨두고, 보존해서 오산장터와 연결해서 관광화하고, 현대인들이 지쳤을 때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A : 주차장이 있나요?

기억의 샘터 : 동네라서 주차장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버스는 다녀요. 주차는 주변 상가에 세우고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류설아 :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상에는 어떻게 가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물어보시는 건데 직접 찾으신 길 넣으시고, 시작점부터 해서 마등산 입구까지 30분코스, 마을 한바퀴 1시간 코스 같이 코스를 만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거점을 잘 표시해서 걷기 좋은 관광지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터줏가리나 마등사굿집도 남아있으면 좋겠고, 중요하다는 것들도 잘 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1조 팀명은 **오미수범**인데요. 오산의 아름다운 손을 가진 범상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범상치 않은 1조입니다. 저희는 오산의 생활문화장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물중심으로 지도를 만들었구요. 우선 서예장인 문용대 선생님은 양산동에 거주



하셨는데 오산 토박이로 사시다가 외지로 나가셨다가 중국에 가서 사업도 하셨다가 여러 일을 하시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촌하신 분이세요. 5살때부터 붓을 잡고 서예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건 아닌데 중요한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던 이분의 스승님이신 우죽 양진니 선생님의 서예작품을 이 분이 소장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 이 작품을 널리 알리고, 후학양성을 하면 좋겠다는 큰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이신 이규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삶의 전통을 직접 전수받고, 또 후대에 전수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실제로 저희가 이 댁을 방문했는데 항아리가 그림같이 너무 예뻐요. 실질적으로 전통장을 친정어머니께 배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계속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터득하신거죠. 장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것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으시더라구요. 전통장을 담그고, 또 전통햇살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소량으로 판매도 하고 계시고, 관광객이나 학교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장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산 양조입니다. 오산에 양조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오색시장 윗부분 예전 미시장이라고 불리던 곳에 위치해 있는데 김유훈 대표님이신데 제가 너무 찾아 뵙고 싶던 분이십니다. 이 분의 바람이 오산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생각했더니 3대째 장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양조장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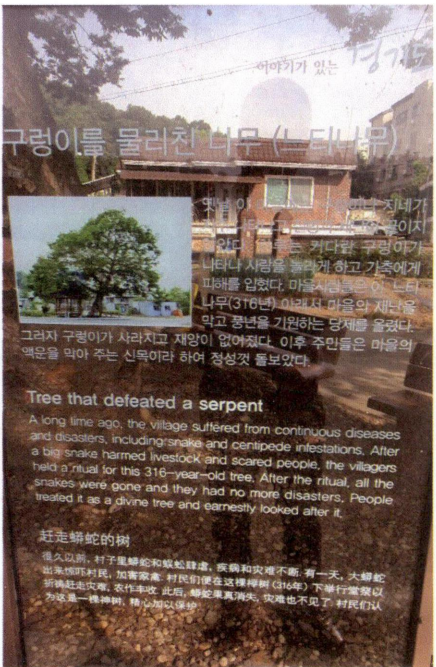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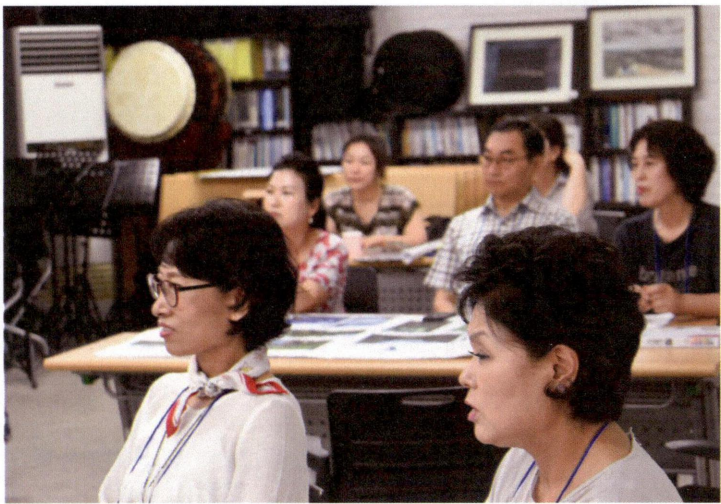


느 지역이나 다 있는데 오산에만 없는게 아쉬워서 오산 전통의 술을 개발하고자 양조장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리술이라고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현재 가장 주력상품이고, 오산막걸리, 오매맥주 독산53 등 다양한 술을 만들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선행을 베푸시는게 양조장 가운데 공중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데 양조장 밖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화장실을 만들어서 무료개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크게 기업으로 발전을 하진 못했지만 저는 이 분이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짝 장인 호연 안규조 장인이세요. 저희 조가 인물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는 구상을 위인전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은 전북에서 출생하셨는데 현재는 오산시 은계동에서 30년 정도 사셨고,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장인들이 다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안규조장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고향에 살면서 생계유지로 기술배우는게 더 중요했던거예요. 그래서 문짝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만 마치고 부산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20여년을 한달 월급 300원 받고 일을 하셨답니다. 생활이 안되니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1999년 최규하 생가 외 15건 문화재라던지 중요한 것들을 복원하고, 신축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1999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을 받으신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느끼게 나도 오산 시민으로서 오산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걸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시티투어와 연결해서 저희가 문짝장인 만나서 냄비받침을 만들고 왔는데 이 분이 사는 곳은 오산이지만 장인등록이 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원에 작업장을 두고 계세요. 근데 오산에는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이분도 오산에 작업장을 만들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예를들어 이런 작업장이 오산시에 있다면 시티투어로 이 작업장에 들렀다가 이규희장인님 댁에 가서 요리나 전통장을 배우고, 여기서 점심을 먹고 서예장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집안의 가훈이나 족자도 만들고, 시장으로 가서 오색시장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양조장에 와서 수제맥주도 만들고, 요리술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루 코스를 만들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류설아 : 사진을 다 액자처럼 정리하시면 좋겠고, 인물사진이나 술 사진을 하나씩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책처럼 인터뷰 글로 다 풀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안하신 코스가 재미있어요. 그게 지도에 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짝 만드신 것과 이규희 선생

님 장 그런 실물도 함께 전시하면 좋겠습니다.



여 백

p.81-82

오산 마을큐레이터의 보물찾기

발표 | 오미수범

발표 | 오매사랑

발표 | 기억의 샘터

발표 | 힐링아지트

결과

1



드디어 전시회다. 오산시청 로비에서 4조 전원이 직접 제작한 마을지도를 전시하며 발표회와 수료증을 받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발표품과 손품이 빛은 마을지도는 작품이 돼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팀 명 : 오미수범

조 원 : 이규희, 이현욱, 최은경, 황인숙, 이현서

지도명 : 미수범을 찾아라!

기획의도 : 숨은 생활장인을 찾아서 삶의 행복을 더한다

제 안 : 은계동 문짝 장인 호연 안규조, 오산양조 김유훈 대표, 서동 전통장 전통햇살 이규희 이사장, 양산동 서예장인 인경 문경호 등을 토대로 한 체험형 오산시티투어 프로그램 기획 운영

안녕하십니까 마을큐레이터 참여자 및 내외빈 여러분! 저는 1조 발표자 이서현입니다. 저희 1조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오산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어떤 인물들을 선정하면 좋을까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의 일상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고 현존하고 계신 오산 분들 중에서, 더 나아가서는 오산시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생활 장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생활장인이 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취재하고 저희가 실습을 참여해봄으로써 정말로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다닐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뭔가 뿌듯하게 차오르는 감동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만 나눌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조명은 오미수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사자성어인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오산의 아름다운 손을 가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오미수범으로 칭하였습니다.

조원은 황인숙 선생님, 이규희 선생님, 이현욱 선생님, 저 네 명에서 팀 활동을 했는데요 지도명은 여기에는 오산의 미수범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지도명은 미수범을 찾아라! 입니다.

미수범을 찾아서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도는 숨은 생활장인을 찾아서 삶의 행복을 더한다 라고 저희는 의도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장인은 오산시 은계동에 거주하시는 호연 안규조 문짝 장인입니다. 호연 안규조 문짝 장인께서는 전북에서 출생하셨지만 일찍이 오산시 은계동에 정착하시면서 30여년 동안 오산에서 거주하신 오산 시민이십니다. 이분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하고 여쭙봤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집안이 빈궁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공일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돈 안되는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최규하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는 일

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소목장 제 14호로 지정돼 있으시고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 8045호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안규조 장인께서는 저희가 장인의 작업장을 찾아갔었는데요, 가보니까 나무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작업장이었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이 분의 작업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만든 실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전통 창호가 뭘까?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시골에 가면 창호지 발라서 만들어진 그 문짝 생각하시죠? 구멍도 뚫려있고요. 맞습니다. 이걸 그 창호기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만든 생활소품 냄비받침입니다.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체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전통문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후대에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재미로 이 나무 보면은 얼룩덜룩 멍이 들어있죠. 혹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소나무, 즉 토종소나무인 육송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보드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구요. 저희가 이 전통을 끊이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작업장 한쪽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젊은이가 계셨어요. 여쭙봤더니 이 안규조 장인의 후계자이면서 아드님이신데 말없이 묵묵하게 나무를 만지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장인님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계동에서 주욱 왔더니 서동으로 왔습니다. 서동에 오니까 이규희 장인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조원이시기도 하시죠. 오늘은 저렇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음식과 전통장을 연구하시고 보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규희 장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도시 안동 의령 김씨 종갓집 딸로 태어나신 친정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추장, 된장, 전통장 만들기와 전통음식 만드는 것을 전수받으시고 오산에 정착하시면서부터 전통음식 만들기와 전통장 체험학습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덕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규희 장인께서 손수 전통 비빔밥을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실습을 해서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어디를 가봐야 할까요? 정신도 채워야 되겠죠.

쭈깁니다. 조금 떨어져서 갔어요. 양산동으로 왔습니다. 양산동에 오니까 서예장인 문용대 장인님이 계시는데요. 정조대왕을 호위한 장군 문씨 집성촌인 오산시 양산동 문씨 집안에서 출생하셨고 지금도 이 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니까 묵향 은은하게 나는 서예실에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작품, 여기에 있죠. 물론 우리 서예장인님 문용대님이 만드신 작품도 많이 있지만 이 분이 가장 추도하고 계신 그 분의 스승이셨던 우죽 양진리 선생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계셨어요. 일반 작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상을 수상한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제일 앞에 보이는 이게 지금

대통령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우죽 양진리 스승의 후계자로서 이 분의 작품을 알리고 또 검혀와 겸손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뉘엿뉘엿 어느덧 시간이 해보름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어가죠.

그래서 이제 오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오산 전통시장 오색시장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전통시장 중에서도 야맥축제가 있고 한데 우리는 야맥축제 바로 위에 오산양조장을 가봤는데요 이 곳에서 저희가 만나게 된 장인은 바로 오산양조 대표 김유훈 선생님이십니다. 이 분은 여기 오산시장의 이 장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 분만 그런 게 아니라 3대 대대손손 여기가 터전이셨던 거예요. 오산시장이 지금 개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오산시의 전통이 없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오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 끝에 오산의 술을 만들자 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 양조장을 마을기업으로 설립을 하셨구요. 우리나라는 예부터 어느마을이나 양조장이 하나씩 다 있죠. 양조장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끼와 유흥에 소질이 있는 민족이라 그런지 이렇게 각 지방도시마다 술익는 마을인데 오산시만 오산시를 대표할만한 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유훈 대표님께서서는 오산을 대표할만한 술을 만들자고 하시고 오산양조장을 설립하시고 이 분의 오산사랑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었는데 오산 세마쌀만을 이용해서 오산막걸리를 제조하시는 거예요. 오산 세마쌀이 품질도 좋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싼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하시는거예요. 오산 세마쌀만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분의 굳은 신념과 오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터뷰하면서 계속 제가 느낀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하시면서 선한 인상을 주셨거든요. 저렇게 신념이 강한 분인데 저런 선한 인상을 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조장 앞에 굉장히 크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더라구요. 이 화장실은 이 분이 3대 대대손손 오산시장에서 가업을 이어 내려오면서 그 시장터에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을 다시 시장터에 환원하겠다는 의지가, 오산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산시장에 방문하면 화장실 급할 때 굉장히 난감한데 그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오산인이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로 오산의 숨은 장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짧은 일정상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인 몇몇 분들 중에서 저희 조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아주 엄선해서 네 분의 장인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호연 안규조 장인님 체험장에서 저희가 체험하고 또 오늘 전시회를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이규희 장인님께서 보시면 고추장이죠. 여기에 가시면 일단 고추장, 된장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도 식사를 하시고 이런 체험 해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 이건 문용대 장인님 작품이시고, 오산막걸리는 오산 양조장에서 나온 실제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오산시민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구요. 제가 소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각각의 생활장인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우리 조원들 네 명의 얼굴에는 다들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에, 자기도 모르는 행복에 취해있더라구요. 다 그러셨어요.

이걸 공유하고자 제안하는데요. 이 생활장인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체험 프로젝트를 저희는 진행을 했거든요.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산 시티투어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규조 장인 작업장에 가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보고 또 전통 음식장인 이규희 선생님과 자기가 직접 실습해 본 음식을 먹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먹을 갈아서 묵향을 맡으면서 우리집의 가훈이나 내 이름 석자 정도는 화선지에 써보고 마지막으로 오산시장으로 가서 그 날의 마지막 여운을 돋구는 막걸리도 시식해보시면서 이렇게 여행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티투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명 : 감동 오산천

조 원 : 임해길, 김현학, 고찬영, 최은경, 김성숙

지도 명 : 오산천의 생태지도

기획의도 : 오산천의 생태 및 활용도 조사

제 안 : 음수대, 발담그기, 쌍방향 공유자전거, 바
이크 대여, 대교 아래 벤치 화장실 카페 푸드트럭 등
의 휴식공간 마련, 소공연장 조성, 원격제어 미니 자
동차 경주와 빠르게 걷기대회, 유모차의 날 등의 소
규모 축제 개최로 활성화

보시다시피 저희는 감동오산천이라는 주제입니다. 오산천이 오산시민에게 주는 감동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산에 오산천이 없다면 오산에 허파가 없는거나 마찬
가지 아닐까요? 휴식공간이라고 할 게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오산천에 오작교라는
훌륭한 다리도 있더라고요 차도 안다녀서 가족과 함께 다니기 좋습니다. 행사도 굉장히 많습
니다. 정월대보름축제와 음악회, 그리고 달빛나래영화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야간에 모여
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천에 있는 꽃들과 동물들도 조사해 봤는데요. 다양한
조류, 어류가 살고 있고, 연꽃단지도 볼만 합니다. 오산철교 근처에는 물억새군락지가 조성되
어 있고, 특히 벚꽃길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있어서 봄에 연인들끼리 손잡고 걷기 아주 좋
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안할게 좀 있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데

물이 중간에 있었으면 중간에 손도 씻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맑음터공원에 공유자전거가 있는데 꼭 반납을 이곳에서 해야합니다. 이게 불편한데 여기서 빌리면 금오대교가 있는 끝부분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도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곳이 부족했는데 대교 아래에 사진 붙인 것처럼 벤치와 화장실, 카페, 푸드트럭이 있으면 시원하게 잠깐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명 : 기억의 샘터
조 원 : 김영순, 신계현, 이석환, 이미정, 임정례
지도 명 : 우리동네 마실길
기획의도 : 도시화로 인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 간직하고 추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 : 동네 골목골목에 벽화 보강 및 벤치 마련. 오산시티투어의 한 코스로 선정해 관광지도 거들었으면 한다. 마등산 등산로 안내 표지판 제작

먼저 저희 기억의 샘터 조원분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소중하고 발로 뛰신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는 이렇게 많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걸어다니며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오셔서 저희 지도를 봐주세요. 보시면 저기 미수범 쪽 가서가지고 만들기도 하시고 체험도 하셨잖아요? 그 옆에 오셔서 오산천도 많이 걸으셨어요. 힘드셨을거예요. 여기 오셔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이제는 힐링을 하셔야죠? 오리지널 힐링하시려면 정말 옛날 추억도 생각하시고 어렸을 때 걷던 길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벽화길, 저희가 벽화길의 지도명의 제목을 우리동네 마실길로 정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동네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는 동네 마실을 설설 다녔어요. 지금은 그런 마실길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정말 소중한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마을버스 53번 종점에서 시작되는 원4동 매화가 꽃피는 문화마을이에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거의 모르세요. 저희도 가보면서 처음 발견한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징검다리길, 꽃길다리길, 이렇게 쪽 있는데 여기에 사진에 다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어린왕자길, 개조심길 다 있습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만족이 안됩니다.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53번 종점. 거기 가시면 정말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아, 이런 길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동네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감탄들이 생기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으시면 이 길을 한 시간이면 이렇게 가셨다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쁜 길이고 솔직히 없어지지 말았으면 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이 아파트는 걸을만한 곳이 없잖아요. 아파트 숲속에 가운데 보석 같은 길은 정말 오랫동안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길이거든요. 저희가 다니면서 여기 마등산길 있죠? 혹시 마등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옆에 굿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원4동에서 1.5km 차를 타고 가시면 마등산 가는 길목에 마등산 굿당이 있어요. 솔직히 이 굿당이 지금 많이 잊혀졌지만 그 여기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 엄마. 할머니 다 집안의 안녕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빌고 했던 곳이 굿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아있더라구요. 산속 깊은 곳에. 지금은 우리가 미신이다 뭐다 해서 많이들 잊혀지고 등한시하는 것들인데 우리 문화가 이런 미신문화였잖아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남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말로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직접 걸어보세요.

여기 마등산의 사계절 사진도 다 있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저희가 몇 번씩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일일이 글씨 써가며 만든 지도예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3년 전에 대원동사무소에서 벽화를 그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완성을 못하고 일부만 그렸다고 하는데 시에서 여력이 되면 재정비를 해줘서 조금 더 길도 예쁘게 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하지만 우리끼리만 논다고 문화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용인이나 수원, 평택의 근접도시 사람들이 오산 조그만 도시가 별볼일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동네도 있더라 하고 와서 한바퀴 돌고 여기도 마지막 한바퀴 돌면서 옛날 어린시절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러고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 번씩 가보세요. 멀지 않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 명 : 힐링아지트
조 원 : 박은영, 지은정, 박지선, 유영희
지도명 :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1, 2
기획의도 :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무와 함께
제 안 : 모든 장소 주차장 확충, 쉼터 홈페이지
개설 요청, 서랑동 마을, 오산돌감리교회 등 적극적인
인 홍보 필요

저희는 오산의 힐링아지트를 조사했구요.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산의 나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산에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500년된 오산의 마스코트인 유한양행 상표가 바로 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밑에 옛날에는 그네가 달려 있었어요. 제가 바로 이 밑에서 그네를 타고 놀곤 했습니다. 쉼터는 절이 아니고 공자의 사

당입니다. 오산이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맞아요 교육도시 오산이 바로 켈리사에서 왔습니다. 교육의 의미로 인성의 중요성 교육의 산실이 된 공자의 가름침이 있는 이 켈리사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이 은행나무보다는 뒤에 있는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가 은행나무 대신 벼락을 맞아서 이 은행나무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향나무를 보면서 저희는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향나무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향나무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켈리사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흡명상, 요가, 사자소학, 명심보감, 시낭송, 풍수지리, 어린이 예절교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오산 시민중에는 켈리사를 모르거나 사찰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켈리사가 곡부공씨의 사유지인지라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가는 제한적인 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던가 홍보 활동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켈리사를 나오셔서 맛집인 능이오리마을에서 식사도 하시고, 담소라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시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곳은 시장에 꽃집 닭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꽃집이 아니고 닭갈비집이에요. 전에는 꽃집통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곳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실린 이대희라는 천문학박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던 차에 위성류 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꽃집닭갈비집 근처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꽃말이 득남이라고 합니다. 이 대희박사가 어린 시절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동네에서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대희씨를 지켜본 나무에게 이대희씨 어머니의 교육방식과 삶의 지혜를 물어보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연결해서 나무 옆 상자를 비치해 고민이 있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근처에는 장칼국수 맛집과 오래된 돌교회인 오산감리교회도 있어서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랑동은 사실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마을입구에는 구렁이를 물리쳤다고 전해지는 350년된 느티나무가 있구요. 최근에는 이렇게 데크도 깔아놓으셔서 산책하기 좋구요. 농촌 체험학습도 가능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도 탈 수 있어요. 브런치의 명소인 도르프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좋구요. 그런데 이 세 장소들을 다니면서 아쉬웠던 건 주차장소였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구요 서랑동마을이나 시장근처에 있는 오산돌감리교회는 아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 백

오산 마을큐레이터를 마치며 사업리뷰

결과

2

2019 오산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따르릉 오산문화원이죠? 마을큐레이터 되기 참여하고 싶은데요”란 전화와 함께 오산문화원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참여 신청과 함께 마을큐레이터가 무엇을 하는 수업이죠? 라며 다들 수업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셨다.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마을과 결합시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들과 몇 번의 회의를 하고, 관련 자료와 책을 읽었어도 기본적인 지식들로만 채워질뿐,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체감하지 못한 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수업 첫날.

마을큐레이터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품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강의실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26살 젊은 청년부터 시민기자, 문화관광해설사, 역사 선생님 등 연령층과 직업이 다양한 시민분들이 오산을 배우고, 느끼고, 발견하기 위해서 모여 주셨다.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오산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보는 강의를 듣고, 다음차시부터는 류설아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서 팀별 조사 범위, 관심주제 정하기 등 마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주제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팀이 되고, 팀마다 나무, 하천, 마실길, 숨은 생활장인이란 주제가 도출되었다. 수업시간 마다 팀별로 주제에 맞게 논의하면서 주제에 따른 결과물이 구체화 되고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내용이 더해지면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결과물이 완성되어 갔다. 마을을 다르게 읽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모여 수업이 없는 날에도 팀별 답사 활동 후 문화원에 나오셔서 팀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진지한 모습 속에서 많은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마침내 여러 회차의 수업을 거쳐 수료식과 함께 결과물 전시 및 발표회가 있는 날.

네 개팀의 작품들이 오산시청 로비에 전시되었다. 마을의 일상과 지역의 생활문화를 가치 있게 재조명 해주신 결과물과 삶에 시간이 더해져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는 내용의 발표를 인상 깊게 들으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가 이런 거구나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발돋움이 되어서 2년차, 3년차에는 마을의 더 많은 주민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오산의 가치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을큐레이터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도 프로젝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한분의 낙오자 없이 수료해주신 오산 마을큐레이터 선생님들과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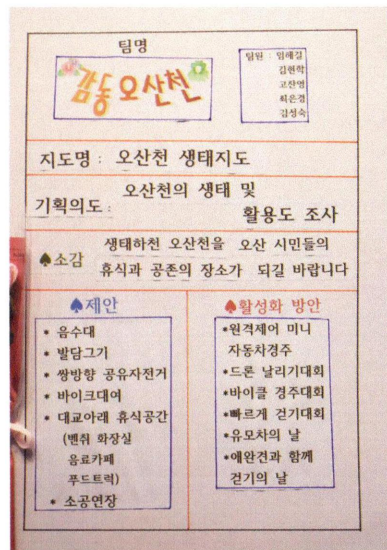
오산문화원 박선영 실장

사진으로 보는 오산 마을큐레이터

결과

3







팀명	기억의 센터
팀원	김영순 신계현 이석환 이이정 엄정혜
지도명	우리동네 마실길
기획의도	도시화로 인해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찾아 관객하고 주역하고 싶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감	●소감● 내가 살고 있는 오산에 대해 알고 싶어 큐레이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산시민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안	●제안● 1. 동네 문물문목에 벽화를 보강 및 벤치 마련 2. 오산시터투어에 한 코스로 선정하여 관광지도 거듭보으면 합니다 3. 마동산 등산로 안내표시판 제작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오산편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19년 12월 26일

발행인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kg.org>

주 소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 031-239-1020

팩 스 | 031-239-3785

이메일 | kccf-kg21@hanmail.net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산문화원

총 괄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김종욱(오산문화원 사무국장)

기획 / 파실리테이터 : 류설아

진 행 | 오다예, 박보름, 박선영

참여자 | 고찬영, 김성숙, 김영순, 김현학, 박은영, 박지선, 신계현, 유영희, 이규희,

이미정, 이서현, 이석환, 이현욱, 임정례, 임해길, 지은정, 최은경, 황인숙

편 집 | 류설아

디자인/인쇄 | 브레인애프트컴 (070-7886-7786)

※ 본 책자는 2019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을 다른 곳에 쓰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모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

오산다운
오산만의
보물찾기